

# 금강수계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 일 연구

정성희\_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관

## I. 머리말

## II. 공간적 배경과 상대편년

1. 공간적 배경
2. 상대편년

## III. 주거지 구조 분석

1. 입지
2. 평면형태
3. 면적
4. 내부시설

## IV. 금강수계 수혈주거지 특징

1. 지역별 변화양상
2. 시기별 변화양상

## V. 맺음말

# 금강수계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 일 연구

정성희

## I. 머리말

현재에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의식주이듯이, 신석기시대에도 입을 옷[衣]과 먹을 음식[食] 그리고 쉬고 자며 비·바람·맹수 등을 피할 수 있는 집[住]은 스스로 얻거나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수 조건이었을 것이다. 의식주 가운데 주[住]에 관한 고고학 자료는 이동성을 갖지 않고 부식되지 않는 유구[遺構]로서 확인되기 때문에 의식[衣]·[食] 자료에 비해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주생활에 대한 고고학 자료의 대표적인 것이 마을 유적이며, 마을의 구성단위로는 집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집터는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기후 등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지리, 지형적인 조건과 생업경제 등에 따라 지역적 또는 시기적으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최근 금강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중서남부지역에는 4대강·새만금·행복중심복합도시·신도시 등의 각종 대규모 개발공사에 따른 발굴조사가 활발해지면서 각 지역에서의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 자료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신석기시대 주거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타 지역에 비해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금강수계는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신무산(神舞山, 해발 897m)에서 발원하여 충청남·북도를 거쳐 서천 마서면에서 군산만의 서해로 흘러드는 금강을 중심으로 금강이 서해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만나는 만경강, 서해중남부 해안·도서지역에 해당되는 태안반도와 군산만 등으로 확장하여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대전·세종·충남을 비롯해 충북 괴산·진천·청주·보은·옥천, 전북 무주·장수·진안·완주·익산·전주, 군산만의 도서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금강수계를 내륙지역과 해안·도서지역으로 구분하고, 내륙지역은 금강·만경강, 해안·도서지역은 태안반도·군산만으로 설정

하였다. 이러한 금강수계는 금강이라는 강물을 따라 각 지역별 특징적인 문화가 동서 또는 남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가교架橋 역할을 담당했던 중요한 곳이다.

현재와는 달리,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신석기시대에는 서로 다른 지형과 자연환경의 영향에 따라 생활권과 문화적 요소가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신석기시대에는 강이나 바다가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었던 만큼,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는 한강과 금강이라는 큰 강의 물길을 따라 주민들이 이동하면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지역별 유적에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근거지였던 주거지에서는 그 분포 양상이나 구조속성 등이 서로 다른 특징이 확인되는 반면, 상호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요소들도 곳곳에 남아 있다. 즉 금강수계의 지역별 주거지의 구조속성에 대한 유사성과 상이성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지역별 또는 시기별 변화 양상을 도출해봄으로써 금강수계 신석기시대 생활문화상의 특징과 상호 교류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한반도 중부지방의 신석기시대 생활문화상을 종합적으로 복원해볼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공간적 배경과 상대편년

### 1. 공간적 배경

본고에서는 금강수계 내에서 주거지의 변화양상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으로 의미를 두고자 하며, 주거지가 확인된 유적을 내륙과 해안·도서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즉 내륙지역은 전라북도 장수군 신무산에서 발원한 금강과 지류를 포함한 금강수계와 금강이 서해로 들어가기 전 출구에서 만나는 만경강수계를 포함하고, 해안·도서지역은 서해 중남부에 위치하는 태안반도와 군산만으로 설정하였다.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금강수계는 대전·세종(구舊 연기)·충남 동부(계룡·공주·논산·부여·천안·청양)·충북 남부(괴산·보은·옥천·진천·청주)지역·전북 동북부(무주·완주·익산·장수·진안)지역, 만경강수계는 전북 서북부(전주)지역, 태안반도수계는 충남 서부(당진·보령·서산·서천·아산·예산·천안·태안·홍성)지역, 군산만수계는 전북 서부(군산·김제·부안)지역 등이 해당된다.

현재까지 금강수계에서 지표조사나 시·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총 130여 개소가 알려져 있다. 이중 주거지 유적은 51개소 <표 1·2>로, 수혈주거지(이하 '주거지'라 함)는 94기(I기 8기·II기 72기·III기 9기·불명 5기)가 확인되었다. 이 장에서는 지역별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확인된 취락 입지와 주거지의 내부 구조속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보고

서 미 발간 등으로 개별 주거지의 정확한 속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기불명으로 처리하면서, 파악이 가능한 구조 속성만 간단히 소개하였다.

### 1) 내륙지역

내륙지역은 금강과 만경강수계에 해당되는데, 금강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뒷산인 신무산의 뜯봉샘에서 발원하여 상류의 전북(진안·무주)·충남(금산)·충북(금산·영동·옥천) 등을 거쳐, 중류의 대전·충남(공주·부여·논산) 등을 지나, 하류의 충남(서천)·전북(익산·군산)에서 서해로 흘러드는 우리나라 6대 하천 중의 하나이다. 중상류에서 청주·옥천·대전분지 등을 거치고, 중하류에서 규암평야·논산평야 등 넓은 충적대지를 형성하며, 지류로는 남대천·정자천·봉황천·송천·보청천·갑천·미호천·유구천·금천·논산천 등을 들 수 있다. 상류지역은 진안고원을 중심으로 덕유산(德裕山, 해발 1,594m)·백운산(白雲山, 해발 1,279m) 등 높이 1,000m 이상의 험준한 산들이 솟아 있는 산악지대로, 산지들을 깎아 흐르는 하천들은 심하게 감입곡류(嵌入曲流)한다. 중류지역은 대체로 경사가 완만한 저구릉지(低丘陵地)와 계곡들 사이에 소규모의 퇴적평야가 발달해 있다. 하류지역에는 부여에서 서천 장항까지 펼쳐져 있는 넓은 충적평야를 지나면서 완만한 지형과 넓은 침식계곡을 형성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심으로 동쪽은 매우 가파른 산악지형을 이루고 있으나, 서쪽은 서해안에 이르기까지 경사가 완만한 저구릉지 또는 평야지대가 발달되어 있다.

만경강은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과 소양면의 경계인 원등산(遠登山, 해발 713m)에서 발원하여 호남평야의 중앙을 서류하여 익산의 남쪽을 지나 서해로 흘러드는 강이다. 운장산(雲長山, 해발 1,126m)에서 발원한 고산천과 만덕산(萬德山, 해발 762m)에서 발원한 소양천을 중심으로 전주천·삼천·익산천·탑천 등의 여러 지류가 합류되어 흐르다가 군산시와 김제시 사이의 넓은 간석지 하구에서 서해로 흘러든다. 충적평야 위를 심하게 곡류하며 흐르는 전형적인 곡류하천(曲流河川)으로, 하구에서 48km 떨어진 삼례 부근까지는 대조시(大潮時)에 하천 수위가 상승하는 감조하천(感潮河川)이다.

내륙지역에서는 19개소 <표 1>의 주거지 유적에서 27기(Ⅱ기 18기·Ⅲ기 8기·불명 1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각 주거지의 개별 속성은 <표 3>과 같다.



표 1. 내륙지역 주거지 유적 현황표

연번	시·도	시·구·군	유적명(+유구)	참고문헌	비고
1	대전	유성구	관평동	중암문화재연구원, 『대전 과학산업단지 1단계 사업지구내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2001); 동저, 『대전 관평동 유적-대덕테크노밸리 사업지구내』(2002).	Ⅱ기 B.C. 3370~2660년(B.C. 3020년)
2	충남	계룡	용동리	공주대학교박물관, 『계룡 용동리 유적』(2011).	Ⅱ기
3			입암리 (아외노지)	박종진, 『계룡 입암리 산2-7번지 유적』,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 성과』(제32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	Ⅱ기
4		공주	신관동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공주 신관동 관굴유적』(2009).	Ⅱ기 B.C. 3370~2910년(B.C. 3140년)
5		연기 (현 세종)	대평리 (현 세종 대평동)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연기 대평리 유적-행정중심복합도시부지내 3-1-C지점』(2012).	Ⅲ기
6			석삼리 (현 세종 소담동)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연기 석삼리 유적-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학연구지역 생활권 4-1·2(시굴 3-2)지점』(2015).	Ⅲ기 B.C. 2780~2250년(B.C. 2520년)
7		청양	학암리	공주대학교박물관, 『학암리 유적』(선문인쇄사, 2002).	Ⅲ기 B.C. 2470~2360년(B.C. 2420년)
8	충북	영동	한국리 (+적석유구)	중원문화재연구원, 『영동 한국리 유적-영동산업단지 조성부지 내』(2015a).	Ⅲ기 B.C. 2630~2450년(B.C. 2540년)
9		옥천	대천리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옥천 대천리 신석기유적』(서울: 서경문화사, 2003).	Ⅱ기 B.C. 3650~2610년(B.C. 3130년)
10		청주	쌍청리	국립청주박물관, 『청원 쌍청리 주거지』(서울: 학연문화사, 1993).	Ⅲ기 B.C. 2500~2180년(B.C. 2340년)
11			영하리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청원 영하리 유적-청원 영하~우산간 도로 확·장공사구간 내 유적』,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009).	Ⅲ기 B.C. 3130~2620년(B.C. 2880년)
12			황탄리(바리미골) (+유물산포지)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청원 황탄리 바리미골유적』(2012).	Ⅲ기
13			가락리	중원문화재연구원, 『청주 가락리 유적-청주 옥산면 가락리 산65-3번지 공동주택건설 사업부지 내』(2015b).	Ⅱ기 B.C. 3210~2910년(B.C. 3020년)
14			봉명동	충북대학교박물관, 『청주 봉명동 유적(Ⅲ)-Ⅳ지구 조사보고 ②』(서울: 학연문화사, 2004).	Ⅱ기 B.C. 3550~2900년(B.C. 3200년)
15	전북	익산	신용리(갯점)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신용리 갯점 유적-익산 서동마 농촌 테마공원 조성부지 내』(2014).	Ⅱ기 B.C. 3340~2920년(B.C. 3130년)
16			웅포리	김대성, 『익산 웅포리 유적』, 『한국신석기연구』14(한국신석기학회, 2007). 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웅포리 유적(Ⅰ·Ⅱ지구)-익산 웅포관광지(3지구) 문화재 발굴조사』(2007a).	Ⅲ기 B.C. 2780~2250년(B.C. 2520년)
17		전주	효자동	전북문화재연구원, 『전주 효자동(D·E·F구역)-전주 효자동 5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2007b).	Ⅲ기
18		진안	갈용리 (갈머리)	호남문화재연구원, 『갈머리 유적-진안 용담댐 수몰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3』(2003).	Ⅱ기~Ⅲ기 B.C. 3700~1890년(B.C. 2800년)
19			삼락리 (진그늘)	조선대학교박물관, 『진안 진그늘 선사유적』(2005).	Ⅱ기 B.C. 3550~2300년(B.C. 2930년)

표 2. 내륙지역(금강+만경강) 주거지 속성표

시기	입지	유적명	유구 번호	주거지				노 지				주공	출입시설		기 타		폐기	비고(보유명대)							
				평면 형태	규모(㎡) (정단비)	면적(㎡)	바닥	평면 형태	위치	수량	규모(㎡) (정단비)		구조	구조	위치	형식			기타						
11기	충적 대지	진안 김용리 (김마리)	2호	완형	420×418×50 (1.00)	14	생토면	완형	편제 (북동)	1	73×73×? (1.00)	수혈식? (소토)	북주시?	토단?	인부 벽구	다·가·형			B.C. 3700~2800년(B.C. 3300년) 해발 242m 단사집선문 · 응황조대문 · 황주아굴문 · 조유문 · 무문 양 등의 토기편과 석제 굴자구(농구)						
			1호	완형	740×640×60? (1.26)	37	생토면													수혈식? (소토)	북주시?				B.C. 3380~3090년(B.C. 3240년) 해발 242m 단사집선문 · 응황삼각집선문 · 조유문 · 능검문 · 미대 문 ·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화석(수혈구) · 찌개 · 별화 구 · 수혈(이상 공구) · 갈판 · 갈돌(이상 식량기공구) 등 의 석기
1호	자변형	930×600×16 (1.55)	56	생토면						인부 벽구	다·가·형			B.C. 3550~2850년(B.C. 3200년) 해발 238.5m 단사(응황 · 삼각집선문 · 능검문 · 황주아굴문 · 형선 문 · 조유문 · 식격자문 · 가쳐문 ·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화석(수혈구) · 도끼(공구) · 갈돌(식량기공구) 등의 석 기											
1호	완형	430×(430)×39 (1.00)	(15)	생토면							4주시?						평면형태로 규모 추정복원 응고층의 주거지와 유사 지점의 주거지와 유사 해발 238.5m 단사(응황 · 삼각집선문 · 능검문 · 황주아굴문 · 조유 문 · 황선열문 · 조유문 ·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석(수 혈구)								
2호	변용계	(570)×540×25 (?)	(?)	생토면							벽가 3개						해발 238.5m 단사(응황집선문 · 능검문 · 황주아굴문 · 조유문 · 식격 자문 ·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석제 굴자구(농구))								

시기	입지	유적명	유구 번호	주거지				노 지				주공	출입시설		기 타		폐기	비고(포장연대)
				평면 형태	규모(㎡) (장단비)	면적(㎡)	바닥	평면 형태	위치	수량	규모(㎡) (장단비)	구조	구조	위치	형식	기타		
한 기	충적 대지	인산 모정리 진그늘	3호	원형	(600)×(550)×30 (1.09)	(26)	색토면	원형	판제(북)	1		와수식						해발 238.5m 단새농성·상기진성문·능선문·황주아골문·황선 영문·무문영 등의 토기편과 토제배장자, 황선축수령 구·도끼·숫돌이상 공구 등의 석기
			세종 소담동	비형	450×(392)×12 (1.16)	(18)	색토면	원형	중앙	1	44×38×20 (1.16)	수혈식	4주식 다수		수혈 (안부)	1		B.C. 3500~3000년(B.C. 3250년) 구릉 정상부 평탄(해발 52m) 황주아골문·단새성문의 토기편과 석제 보습?
			공주 신관동	상방 하방형	985×802×74(벽구) (1.23) 777×706×37(토단) (1.10) 226×124×38(축) (59) 522×414×20 (1.26)	79 55 +3 (59) 22	색토면	자방형 방형	중앙	1	88×42×16 (2.10)	수혈식	4주식?	돌출식 (인사동식)	토단 와수 벽구	'C'자형 'C'자형	화제	B.C. 3520~2910년(B.C. 3220년) 2단 굴광 구릉 정상부 평탄(해발 30m) 황주아골문·응향진성안남문·능선문·단새성문 등 의 토기편과 석제 어명촉(아문구)
			대전 관평동	자방형	980×555×54 (1.73) 170×88×12(축) (54)	53 +1 (54)	색토면	원형	판제(북) 주공 중앙	1	90×90×18 (1.00)	수혈식	4주식	돌출식 (대천리식)				B.C. 3370~3000년(B.C. 3190년) 구릉 정상부 평탄(해발 71m) 응향진성문·황주아골문?·무문영 등의 토기편
한 기	인산 신용리 (가점)	1호	상방 방형	상방 방형	1,563×939×85 (1.66) 170×150×50(축) (150) 1,491×851×51 (1.75)	147 +3 (150) 127	색토면	방형	판제(서) 주공 중앙	1	117×90×21 (1.30)	수혈식	4주식 보조주공	돌출식 (대천리식 +토단)	토단 (서반) 소성 시절	'C'자형 타원형	인도적 화제	B.C. 3340~2920년(B.C. 3130년) 내부구간 분할 / 2단 굴광 구릉 정상부 평탄(해발 50m) 능선문·작나무·황선문·응향진성문·무문영 등의 토 기편
			2호	상하 방형	(780)×(680)×100 (?) (640)×(525)×44 (?)	(?) (?)	색토면	방형	중앙	1	(97)×(68)×7 (?)	상방식 (점토대)	?	?	내부 벽구	'C'자형?		2단 굴광(대천리사+토단) 구릉사면 상단부 능선(해발 59m) 황선문·응향진성문·무문영 등의 토기편과 석제 굴지 구능장구

시기	입지	유적명	유구 번호	주거지			바닥	평면 형태	노 지				주공	출입시절		기 타		폐기	비고(보정연대)
				평면 형태	규모(㎡) (정단면)	면적(㎡)			위치	수량	규모(㎡) (정단면)	구조		구조	구조	위치	형식		
한 기	유천 대천리		1호	장방형	950×510×35 (1.86) (194)×(174)×80(축)	48 +3 (51)	생토면	1. 방형 주공 중앙 2. 방형 판제돌	2		88×67×10 (1.01) 85×62×14 (1.05)	수혈식 수혈식	4주식 벽기배열	돌출식 (대천리식)	서벽 중앙	칸막이 수혈	1 2		BC. 3320~2650년(BC. 3040년) 내부공간 분할 구름 장상부 평단면(해발 108m) 능황주아굴문 · 흥진선문 · 능죽문 · (단사선문 · 횡단) 선문 · 조문 ·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칼자국(칼자국) · 도 끼 · 솥들 · 무늬새(가게)이상 금구 · 칼판 · 칼들 · 골이 (이상 식량기공구) 등의 석기
	창주 가락리		1호	장방형	630×272×18 (2.32) 90×75×10(축)	17 +1 (18)	생토면	원형	1		75×57×10 (1.32)	수혈식	4주식 벽기배열	돌출식 (대천리식)	남벽 중앙			BC. 3210~2910년(BC. 3020년) 내부공간 분할 구름시면 상단부 평단면(해발 72m)	
	대전 관평동		1-1호	장방형	1,122×510×64 (1.73) 210×132×23(축)	57 +3 (60)	생토면	방형	1		138×108×16 (1.28)	수혈식	4주식	돌출식 (대천리식)	남벽 중앙			BC. 3350~2660년(BC. 3010년) 구름시면 상단부 평단면(해발 68m) 능황선문 · 황주아굴문 · 무문양 등의 토기편	
계룡 요동리		1호	방형	968×700×86 (1.38) 170×130×17(축)	68 +3 (71)	점토다짐	원형	중앙	1		138×138×8 (1.00)	수혈식	4(6) 주식 외주공	돌출식 (유서대 천리식)	남벽 중앙	토단 (서반)	'미지형'	구름 장상부 평단면(해발 153m) 황주아굴문 · 능형 제형진선문 · 능죽문 · 사선문 · "지"문 · 사각지문 등의 토기편과 황칠(수혈구) · 솥 틀(공구) · 칼판 · 칼들(이상 식량기공구) 등의 석기	
한 기	계룡 요동리		2호	방형	456×382×35 (1.19)	(14)	생토면	원형	중앙	1	85×60×5 (1.42)	수혈식	4주식 외주공	수혈식				노지(원지)로 규모 추정됨 구름시면 상단 부평단면(해발 150m) 황주아굴문 · 사각지문 · 조문 ·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칼들(식량기공구)	
한 기	계룡 임암리		1호	장방형			생토면	원형	1			수혈식	4주식 벽기배열	돌출식 (대천리식)	남벽 중앙			구름 장상부 평단면 황주아굴문 · 능황진선문 등의 토기편과 석제 칼지 귀(농기구)	
한 기	전주 효지동		1-1호	방형	420×385×6 (1.08)	16	생토면	장방형	중앙	1	105×68× (1.54)	수혈식	4주식	돌출식 (유서대 천리식)	남서벽 중앙			이산 요동리 주거지의 유사 구름 장상부 평단면(해발 52m) 집사문(토기편)	

시기	입지	유적명	유구 번호	주거지				노 지				주공	출입시설		기 타		비고(보정연대)
				평면 형태	규모(㎡) (정단면)	면적(㎡)	바닥	평면 형태	위치	수량	규모(㎡) (정단면)	구조	구조	위치	형식	기타	
한 구	충적 대지 (자연 채형)	서종 대평동	C-가-1호	방형?	758×582×38 (1.30)	44	생토면	방형	판제남	1	116×80×? (1.45)	상면식?					B.C. 2500~2000년(1500년)(B.C. 2250년(2000년) 해발 18m 단사선문? · 단선문? 등의 토기편과 석제 보검(농경구)
				방형	600×405×20 (1.38)	26	생토면	방형	판제북 주공중앙	1	58×52×24 (1.12)	수혈식	돌출식? (유사대 천리식)	남동			구름 장사부 평단면(해발 52m) 황주아골문 · 퇴화가치문 · 사선문 · 무문양 · 이중구연 등의 토기편과 석제 칼자극(농경구)
		인산 옹곡리	I-1호	방형				?				벽주식?	돌출 경사식?	동북	부석형 고지 (안남)	1	B.C. 3500~2800년(B.C. 3200년) 주공양치로 규모 추정 복원 구름시면 하단부 평단면(해발 59m) 황주점령문 · 황주아골문 (단 · 침사선문 · 평행선 문 · 능선문 · 무문양 · 이중구연 등의 토기편과 석제 어 망추(아문구)
				방형?	370×370×38 (1.00)	(11)	생토면					수혈식?					구름시면 하단부 평단면(해발 58m) 황주아골문 · 침사선문 · 능선문 등의 토기편과 연석 (석방가문구)
		창주 영하리	I-C-2호	?	?	?	생토면	방형?	판제북	1	32×32×5 (1.00)	수혈식? (소토)					B.C. 3130~2450년(B.C. 2790년) 구름 장사부 평단면(해발 80m) 승화단사문 · 황주아골문 등의 토기편과 화살촉(수렵구) · 파계(문구) 등의 석기
				장방형	850×457×46 (1.86) 125×120×20(물)	39+2(41)	생토면	방형	판제북	1	85×65×10 (1.00)	수혈식	돌출식 (대천리식)	남북 중앙			
		영동 흥곡리	A-1호	방형	342×342×14 (1.00)	(9)	생토면	방형	중앙	1	53×53×7 (1.00)	와부식					B.C. 2830~2450년(B.C. 2540년) 구름시면 상단부 평단면(해발 225m) 이중구연토기 및 석제 칼편(수렵가문구)
				방형	380×380×15 (1.00)	11	생토면	?	중앙	1	?	수혈식				2	B.C. 2470~2380년(B.C. 2420년) 구름시면 상단부 평단면(해발 60m) 황주아골문 토기와 화살촉(수렵구(보검(농경구) · 칼 · 수들(이상 문구) · 공예(상방가문구) 등의 석기

시기	입지	유적명	유구 번호	주거지			노 지				출입시설		기 타		폐기	비고(보정연대)	
				평면 형태	규모(㎡) (장단비)	면적(㎡)	바닥	평면 형태	위치	수량	규모(㎡) (장단비)	구조	주공	구조			위치
Ⅱ기	하안 구릉	청주 쌍왕리	3호	장방형	750×(340)×70 (221) 180×100×30(축)	(26) +2 (28)	생토면						돌출식 (대천리식)	서벽 중앙		화제	B.C. 2500~2180년(B.C. 2340년) 출입구위로 규모 추정복원 구릉 정상부 평탄(해발 50m) 사면은 평행사·곡선문·삼각형·사각·능형(점선 문·횡주아열문·시각자문·능자문 등의 토기편과 보 습·반달칼(이상 농경구)·도끼·숫돌(이상 공구)·갈 판·갈돌(이상 식량공구) 등의 석기
				타원형	604×(392)×50 (1.54)	(19)									돌출수혈 수혈		
발명	하안 구릉	청주 쌍왕리 (바리마골)	Ⅲ-KC-52 호				생토면										평면형태로 규모 추정 복원구릉사면 중단부 능선(해발 147m) 점선문·각자문 등의 토기편

\* 규모에서 (장)방형은 장변×단변×깊이, (타)원형은 장지름×단지름×깊이로 하였다.  
 \*\* 규모와 면적에서 ( )의 숫자는 현재 남아 있는 최대치이거나 추정복원한 수치이다.  
 규모의 단위는 ㎢, 면적의 단위는 ㎡이다.  
 \*\*\* 장단비가 1.5 미만은 원형과 방형, 1.5 이상은 타원형과 장방형으로 하였다.  
 \*\*\*\* 노지위치는 출입시설을 제외한 주거공간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에 편제로 하였다.

## 2) 해안·도서지역

해안·도서지역은 태안반도와 군산만이 해당되는데, 태안반도는 충청남도 서남부에서 서해로 좁고 길게 돌출한 반도로,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여 아산만(牙山灣)·당진만(唐津灣)·서산만(瑞山灣)·적돌만(積沚灣)·가로림만(加露林灣)·천수만(淺水灣)·이북반도(梨北半島)·대산반도(大山半島)·부석반도(浮石半島)·남반도(南半島) 등의 만(灣)과 반도가 많다. 반도의 내륙지역은 고도가 낮은 구릉성 산지이며, 주변의 해안은 경치가 아름다워 1978년 10월 태안해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지질은 서산층군에 속하는 편마암과 화강암이 대부분이고, 동남쪽에는 가야산(伽倻山, 해발 678m)과 서원산(書院山, 해발 473m)을 주봉으로 남-북 방향의 가야산맥(伽倻山脈)이 자리하며, 중앙부에는 팔봉산(八峯山, 해발 362m)의 북쪽 대산읍에 망일산(望日山, 해발 302m)이 있다. 연안은 침강해안(沈降海岸)으로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원래 충남 서산·예산·당진·태안 등이 속해 있지만, 본고에서는 아산·천안·홍성·보령 등을 범위에 포함시켰다.

군산만은 넓게는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김제·부안 사이에 있는 만(灣)이다. 옥구반도·김제반도·변산반도 등의 반도와 선유도(仙遊島)·무녀도(巫女島)·신시도(新侍島)·야미도(夜味島) 등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를 비롯해 비안도(飛雁島)·개야도(開也島)·어청도(於靑島)·연도(煙島) 등 유인도 17개와 무인도 50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북 군산·김제·부안 등의 해안지역은 새만금개발사업에 따라 다목적 용지로 변하였다.

해안·도서지역에서는 31개소의 주거지 유적(표 3)에서 67기(I기 8기·II기 54기·III기 1기·불명 4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개별 속성은 <표 4>와 같다.

표 3. 해안·도시지역 주거지 유적 현황표

연번	시·도	시·구·군	유적명(+유구)		참고문헌	비고
1	충남	당진	가곡리(1)	패총① (+패총)	백제문화재연구원, 『당진 가곡리 패총유적-당진 송산 일반산업단지(3차, 1 구역) 조성부지 내』(2013).	
2				2리② (+유물포함총)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당진 가곡2리 유적-당진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1지점) 내』(2013).	Ⅲ기
3			기지사리(내기)(2) (+수혈유구)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당진 기지사리 유적』(2012).	Ⅲ기 B.C. 3000~2500년(B.C. 2750년)
4			소소리(3) (+수혈유구)		충청남도역사문화원, 『당진 석우리·소소리 유적-당진 합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2011).	Ⅱ기 B.C. 3650~2830년(B.C. 3240년)
5			우두리(4) (+야외노지)		충청남도역사문화원, 『당진 우두리 유적(Ⅱ)-도시계획도로 부지 내 유적』(2010).	Ⅱ기
6			유곡리(6)	아랫말① (+수혈유구)	가경고고학연구소, 『당진 동곡리 뱃말·유곡리 아랫말·유곡리 대창말유적-당진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2-2·3·4구역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2013a).	Ⅱ기 B.C. 3400~3100년(B.C. 3250년)
7				대창말②		Ⅱ기 B.C. 3400~3100년(B.C. 3250년)
8			올사리(7) (+수혈유구)		가경고고학연구소, 『당진 올사리 유적-당진 면천 올사리 638-1번지 일원 전원주택 조성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2013).	Ⅱ기 B.C. 3400~3100년(B.C. 3250년)
9		보령	관창리(9)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관창리 유적-B·G구역』(2001). 충남대학교박물관, 『보령 관창리 유적』(2001a).	Ⅱ기~Ⅲ기 B.C. 3700~2350년(B.C. 3030년)
10		서산	기지사리(10)	Ⅰ 지역①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서산 기지사리 유적-서산 00지역 건설사업 예정부지』(2007a).	Ⅱ기
11				Ⅰ~Ⅲ 구역② (101-3번지)	공주대학교 박물관, 『해미 기지사리 유적-서산 00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2009).	Ⅱ기
12			예천동(11)		가경고고학연구소, 『서산 예천동 지장굴 유적-서산 예천동 434-1번지 일원 공동주택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2015b).	Ⅱ기
13			왕정리(12)		중앙문화재연구원, 『서산 왕정리유적-서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부지내』(2012), pp. 26-28·336.	Ⅱ기 B.C. 3380~3020년(B.C. 3200년)
14		서천	장암리(장암) (+패총)		충남대학교박물관, 『서천 장암패총』(2008).	Ⅰ기~Ⅲ기 B.C. 3960~2110년(B.C. 3040년)
15		아산	백암리(점배굴)(13)		한국고고학연구소, 『아산 백암리(점배굴) 유적』(2010).	Ⅱ기 B.C. 3650~3000년(B.C. 3330년)
16			성내리(14) (+수혈유구)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아산 성내리 신석기유적』(2007b), pp. 24-98·113-137·203-206.	Ⅱ기 B.C. 3650~3300년(B.C. 3480년)
17			용두리(부리기)(15) (+수혈유구)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아산 용두리 부리기 유적-아산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Ⅰ 지역 1지점 조성부지내』(2014a).	Ⅱ기 B.C. 3110~2880년(B.C. 3000년)
18			용화동(가재굴)(16)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아산 용화동 가재굴 유적』(2009a).	



연번	시·도	시·구·군	유적명(+유구)		참고문헌	비고
19	충남	아산	장재리(안강골)(17)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 I-아산 배방 택지개발 사업지구(1단계) 내 발굴조사보고서II』(2008).	II기 B.C. 3400~2900년(B.C. 3150년)
20			풍기동(18) (+수혈유구)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아산 풍기동 유적』(2005).	II기 B.C. 3000년 전후
21		예산	목리(19)	2-4지점① (+야외노지·수혈유구)	충청남도역사문화원, 『홍성 신경리·예산 목리 유적-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2-4지점 건설사업부지 내』(2013).	II기
22				3-4지점②	충청문화재연구원, 『예산 목리·신리 유적-충청남도(내포)신도시 건설사업 부지 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3지역) 3-2·3-4지점: 신석기~조선시대』(2014).	I기 B.C. 3720~3360년(B.C. 3540년)
23			효림리(20)		충청문화재연구원, 『예산 목리·신리 유적-충청남도(내포)신도시 건설사업 부지 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3지역) 3-2·3-4지점: 신석기~조선시대』(2014).	II기 B.C. 3120~2880년(B.C. 3000년)
24		천안	백석동(고재미굴) (+유물산포지)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천안 백석동 고재미굴 유적-천안유통 단지 개발사업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2009b).	III기
25			천당동		천송현, 『천안 청당동 47-4번지 유적』, 『호서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제32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	II기
26		태안	달산리(21) (+수혈유구)		가경고고학연구소, 『태안 달산리 유적-원창~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2012).	I기 B.C. 5990~4720년(B.C. 5360년)
27		홍성	동성리(22) (+수혈유구)		충청남도역사문화원, 『홍성 동성리 유적』(2014b).	III기 B.C. 3100~2600년(B.C. 2850년)
28			상정리(23)		충청문화재연구원, 『홍성 장척리·상정리 유적』(2007a).	II기 B.C. 3100~2900년(B.C. 3000년)
29			송월리(24)		충청문화재연구원, 『홍성 송월리·학계리 유적』(2007b).	III기 B.C. 3090~2890년(B.C. 2990년)
30	전북	군산	오식도동 (25)	가도① (+패총·야외노지·적석유구)	충남대학교박물관, 『가도패총-군장국가공단조성지역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III』(2001). 목포·전북대학교박물관, 『가도』, 『비응도·가도·오식도 패총-군장국가공단조성지역(군산지역)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I』(2002b).	I기~III기 B.C. 4440~1260년(B.C. 2850년)
31				노래섬② (+패총)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군장국가공단 군산지구 노래섬 문화유적 추가 발굴조사(가·바지구)』(1996). 『노래섬 I』(2002).	III기 B.C. 2450~1880년(B.C. 2170년)

표 4. 해안·도시지역(태안반도+군산반) 주거지 속성표

시기	입지	유역명	유구 번호	주거지			노 지				주공	출입시설			기 타		비고(보정연대)
				평면 형태	규모(㎡) (정단면)	면적(㎡)	바닥	평면 형태	위치	수량	규모(㎡) (정단면)	구조	구조	위치	형식	기 타	
1기	해안 구릉	예산북리 (3~4기전)	G-1호	방형	268×260×30 (1.03)	7	생토면	원형	중앙	1	68×68×5 (1.00)	수혈식 (흙꼭대임)					B.C. 3720~3380년(B.C. 3540년) 구릉 정상부 평탄면(해발 44m) 단사침선은 정형문·황주아굴문·능형자살문·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석제 칼자극(농경구)
				(반)원형?	(260)×(60)×25 (?)	?	생토면										B.C. 4440~4420년(B.C. 4330년) 구릉사면 하단부 능선부(해발 13m)
				(반)원형?	(350)×(250)×30 (?)	(3)	생토면										B.C. 4440~4420년(B.C. 4330년) 구릉사면 하단부 능선부(해발 9m)
				(반)원형?	(250)×(230)×20 (?)	(2)	생토면	타원형	편제 (남동 밖) 편제 (북동 밖)	2	70×65× (1.08) 80×50× (1.60)	위축식 위축식	중주식? 단원배치				B.C. 4440~4420년(B.C. 4330년) 구릉사면 하단부 능선부(해발 11m) 3·4호 중복(선형)
2기	해안 구릉	군산 오식도동 (기도)	3호	(반)원형?	(320)×(190)×15 (?)	(2)	점토다진	원형	편제(남동)	4	50×30× (1.67) 25×20× (1.25) 20×20× (1.00) 80×20× (3.00)	위축식 ↓ 위축식 ↓ 위축식 · 위축식	중주식? 단원배치		수혈 1		B.C. 4440~4420년(B.C. 4330년) 노지 및 내부수혈 2회 사용 구릉사면 하단부 능선부(해발 10m) 3·4호 중복(선형)
				원형	700×600×54 (1.17)	33		타원형	편제(남서)								B.C. 3960~3660년(B.C. 3810년) 1·2호 중복(선형) 구릉사면 정형문·편제조형문·황선문·황주아굴문·단사 선문·침사선문·무문양 등의 토기편

시기	입지	유적명	유구 번호	주거지				노 지				주공	출입시설		기 타		비고(보정연대)
				평면 형태	규모(㎡) (장단비)	면적(㎡)	바닥	평면 형태	위치	수량	규모(㎡) (장단비)	구조	구조	위치	형식	기타	
I기	해안 구릉	서천 성내리	2호 (아영지)	원형	380×330×28 (1.09)	?											B.C. 3760~3370년(B.C. 3570년)? 1·2호 중북(후행) 구릉사면 전방문·황좌아굴문·어연문·(사격자문·무문양 등의 토기
			1-1호	신원 양면 하행형	880×680×62 (1.24) 축? 528×420×30 (1.26)	47 22	성토면	타원형	중앙	1	172×112× (1.54)	상방식 양단식	돌출식? (양사동식)	남서벽 중앙?	토단	다지형	
		아산 성내리	2호	비형	510×425×30 (1.20)	22	성토면	원형	중앙	1	50×50×10 (1.00)	4주식 보조주공 수혈식					회배 B.C. 3650~3300년(B.C. 3480년) 구릉사면 상단 능선부 황좌아굴문·단사침선문·능선문·조문·파상 문·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굽지(능경구), 대석 (공구) 등의 석기
II기	해안 구릉	아산 성내리	4호	장방형	700×440×40 (1.59)	31	성토면								토단 (산반) 수혈	다지형 5	B.C. 3540~3350년(B.C. 3450년) 대전리식 구릉사면 상단 평탄면 황좌아굴문·능형침선문·각자문·능선문·조 문·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토계항추(능경구)
			3호	장방형	610×400×10 (1.52)	25	성토면								수혈	3	대전리식 구릉 정상부 평탄면 황좌아굴문·황단사면·단사(능형)침선·점형문· 조문·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석제 굴지(능경구)
		아산 성내리	1호	비형	500×340×35 (1.47) 110×75×30(축)	17 +1 (18)	성토면	원형	중앙	1	55×55×10 (1.00)	수혈식	돌출식 (유사대 천리식)	남동벽 중앙			구릉사면 상단부 능선 황좌아굴문·황수(좌)사면·단사선문·각자문·점 형문·(능형)침선문·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굴지 구(능경구), 대석(공구), 갈판·갈돌(이상 식량가 공구) 등의 석기

시기	입지	유적명 (조사구)	유구 번호	주거지				노 지				주공	출입시설		기 타		비고(보정연대)		
				평면 형태	규모(㎡) (장단배)	면적(㎡)	바닥	평면 형태	위치	수량	규모(㎡) (장단배)		구조	구조	위치	형식		기타	
한 간 구 분		아산 백암리 (문배굴)	KC-003호	방형	345×(345)×30 (1.00)	9	성토면	타원형	편제(서)	1	95×51×15 (1.86)	수혈식	불규칙				BC. 3350~3050년(B.C. 3350년) 구릉사면 중단부 등진(해발 40m) 평면형태로 규모 추정 황주아리굴. 단사선문. 직선문 등의 토기편		
				상방방형 하방방형(?)	(1012)×(610)×90 (?) 출?	?	성토면	타원형	중앙	2	115×70×15 (1.64) 155×80× (1.94)	4주식 다수				토단	노지형	BC. 3380~3000년(B.C. 3240년) 2단 클라인(사동식) 구릉 정상부 평탄면(50.5m) 황주아리굴. 등형집선문. 황단(선문). (단사선문. 'Z' 자문.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석제 굴지구(농경구))	
		아산 백암리 (문배굴)	KC-002호	방형	(545)×528×49 (1.03)	(29)	성토면	방형	편제(서)	1	72×72×? (1.00)	수혈식	4주식?				수혈	1	BC. 3380~3000년(B.C. 3180년) 구릉사면 중단부 등진(해발 42m) 주공아리로 규모 추정 황주아리굴. 사립선문. 무문양 등의 토기편
				방형	(430)×370×20 (1.16)	16	성토면	방형	중앙	1	63×63×24 (1.00)	수혈식	4주식					노지. 주공아리로 규모 추정 구릉사면 중단부 등진(해발 54m) 황주아리굴. 등형집선문.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석제 대(농경구)	
		아산 장아리 (인강굴)	4호	상방방형 하방방형	400×348×45 (1.15) 330×320×20 (1.03)	14 11	성토면	방형	편제(남)	1	125×100×30 (1.25)	4주식 외부다수					토단	'Z' 자형	노지. 주공아리로 규모 추정 BC. 3,400~2,900년(B.C. 3,150년) 2단 클라인(사동식) 구릉사면 상단부 등진(해발 42m) 황주아리굴. 등형(평탄면)사립선문. (황)선문. (단사선문.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석부(구). 연석(농경구))
				방형	388×300×15 (1.23)	11	성토면	방형	편제(서)	1	85×60× (1.42)	상면식 불규칙					남동 모서리	구릉 정상부 평탄면(해발 50.5m) 황주아리굴. 등각문. 황선문. (단사선문 등의 토기편	

시기	입지	유역명	유구 번호	주거지				노 지				주공	출입시설		기 타		비고(보정연대)
				평면 형태	규모(㎡) (정단면)	면적(㎡)	바닥	평면 형태	위치	수량	규모(㎡) (정단면)	구조	구조	위치	형식	기타	
11기	하안 구릉	아산 장제리 (안강골)	3호	장방형?	550×344×40 (1.60)	19	상토면	원형	중앙	2	100×100×15 (1.00) 95×95×20 (1.00)	수혈식 수혈식 (다수)	돌출식	남벽 중앙			구릉(서면 상단부 선상평탄면해발 45.5m) 황주아골은 -능곡문·사각지문·무문양 등의 토 기편
			5호	장방형	590×320×28 (1.84)	(19)	상토면	원형	중앙	1	95×66×88 (1.45)	수혈식	불규칙		토단 수혈 (직장· 자암) 3~4		노지·주공(서토) 규모 추정백원 구릉(서면 중단부 능선해발 40m) 황주아골은·선문·단사선문 등의 토기편과 석제 골자(농경구)
			6-1호	상방 하방형	575×525×65 (1.10) 188×94×30(축) (32) 514×373×40 (1.36)	30 +2 (19)	상토면	원형	중앙	2	81×63×20 (1.29) 75×69×10 (1.09)	수혈식 수혈식 (다수)	돌출식 (은사동식)	남동벽 중앙	토단	노지형	
		아산 장제리 (안강골)	6-2호	방형	390×370×40 (1.05) 169×75×15(축) (15)	14 +(1) (15)	퇴적토	원형?	판제당?	1	?	상방식	4주식	돌출식 (은사동 천리식)	남동벽 중앙		6호-1·2·3·4차 중벽(차-4차) 2단 골방(1차) 구릉(서면 중단부 선상평탄면해발 38m) 황주아골은 -능곡문·황석문·단사선문·각자 문·상방아문·자문·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골 자(농경구)·골·수혈(이상 공구)·칼편·갈돌 (이상 석방(공구) 등의 석기)
			6-3호	장방형	(270)×218×40 (?)	?	퇴적토	타원형	판제당	1	(106)×69× 20(1.53)	수혈식					
			6-4호	방형	435×350×30 (1.24)	15	퇴적토	원형	중앙	2	104×80×35 (1.30) 86×65×15 (1.32)	위벽식 수혈식	불규칙	남동벽 중앙			
		홍성 송월리	1호	방형	576×489×38 (1.18)	(28)	상토면	원형	중앙	1	95×80×15 (1.20)	수혈식	4주식 벽기조각	돌출식 (은사동 천리식)	남벽?	수혈 (직장)	구릉(서면 상단부 평탄면해발 52m) 세황(서문·황주아골은·각지문·패각조형문·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골자(농경구)·도끼·숫 돌·패개(이상 공구)·귀자형조각구 등의 석기
																	BC. 3250~2800년(BC. 3070년) 대천리식

시기	입지	유적명	유구 번호	주거지				노 지				출입시절		기 타		폐기	비고(보정연대)
				평면 형태	규모(㎡) (장단비)	면적(㎡)	바닥	평면 형태	위치	수량	규모(㎡) (장단비)	구조	구조	위치	형식	기타	
11기	하안 구릉	예산 물리 (2-47점)	I-1-1호	상방 하방형	1,092×598×41 (183) 256×121×34(축) 814×561×41 (1.45)	65 +3 (68)	성토면	원형	판재(복사) 주공 중앙	1	142×129×13 (1.10)	수혈식	4주식	남동벽 (유사대천리 +토단)	토단 수혈 (지장)	노지형 1	BC. 3120~2890년(B.C. 3000년) 구릉 정상부 평면(해발 40m) 능형문 · 황주아굴문 · 능형집선문 · 서선문(조구 문) · 단사선문 ·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연석(석량 기공구)
			나-1호	상방 하방형	869×810×24 (106) 778×516×36 (1.50)	69 40	성토면	원형	중앙 판재(남동)	2	83×67×10 (124) 92×75×15 (123)	수혈식 수혈식	4주식? (2중)		토단	노지형	BC. 3110~2890년(B.C. 3000년) 2단 굴형문(서동식) 구릉사면 상단부 평면(해발 46.5m) (중)황주아굴문 · 각자문 (능형집선문 · (황 · 사) 선문 · 노문? ·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도끼 · 보습 등의 석기
		예산 물리 (2-47점)	1호	방형계	460×260×20 (?)	?	성토면										BC. 3000년 전후 / 1·2호 중(복선형) 구릉사면 하단부 평면(해발 33m) 단사선문 · 형사선문 · 능형집선문 · 난선문 ·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대석(구) · 각판 · 각돌이 상 식량(구) 등의 석기
			2호	방형계	410×310×25 (?)	?	성토면										BC. 3000년 전후 / 1·2호 중(복선형) 구릉사면 하단부 평면(해발 33m) 형사선문 · 황주아굴문 · 능형집선문 · 각자문 · 무 문양 등의 토기편과 연석(석량(구))
		예산 물리 (2-47점)	A-11-21호	방형형	732×466×20 (1.51)	36	성토면	원형	중앙	1	83×69×10 (1.20)	수혈식	불규칙	남동벽 (대천리식)			내부공간 분할 구릉 정상부 평면(해발 46m) 단사선문 · (능형)집선문 · 황주아굴문 · 능각문 등 의 토기편과 석제 보타(농구)
			A-11-41호	방형?	444×428×8 (1.04)	19	성토면	원형	중앙	1	90×68× (1.32)	수혈식	4주식 보조주공				구릉 정상부 평면(해발 46m) 집선문 · 황주아굴문 · 능각문 · 서선문 등의 토기편
		예산 물리 (2-47점)	B-1-5호 (수습)	부정형?	332×290×20 (?)	?	성토면	방형	판재(동)	1	66×45×5 (1.47)	수혈식			수혈	1	구릉사면 상단부 평면(해발 33m) 토기편

시기	입지	유적명	유구 번호	주거지				노 지				주공	출입시설		기 타		배기	비고(포장연대)
				평면 형태	규모(㎡) (정단면)	면적(㎡)	바닥	평면 형태	위치	수량	규모(㎡) (정단면)	구조	구조	위치	형식	기타		
II기	하안 구릉	첨단 8단동 (47~4번지)	1호	방형	?	?	상토면	방형	중앙	1	?	수혈식?						구릉 정상부 평터면(해발 61m) 황주아파트. 능형지사로 토기편
			2-3-1호	상면 하방형	554×410×70 (1.35) 100×90×30(축) 358×292×50 (1.23)	18 +1 (19) 10	상토면	방형	중앙	1	80×80× (1.00)	상면식 (소토)	4주식? 다수	돌출식 (문사등식)	남동벽 중앙 (지장)	토단 외벽 수혈 (지장)	‘나’지형 복서	BC. 3400~3100년(B.C. 3250년) 2단 골방 구릉사면 중단부 능선(해발 27m) 황주아파트. 각지문.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석제 골자극(농경구)
			2-3-2호	상면 하방형	850×720×67 (1.18) 160×110×35(축) 555×460×35 (1.21)	48 +2 (50) 26	상토면	방형	중앙	1	100×78× (1.28)	상면식 (소토)	4주식	돌출식 (문사등식)	남동벽 중앙 (지장)	토단 수혈 (지장)	‘나’지형 동토단	BC. 3400~3100년(B.C. 3250년) 2단 골방 구릉사면 중단부 산성평터면(해발 20m) 황주아파트. 각지문.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석제 골자극(농경구)
	해안 구릉	당진 유구리 (대정리)	2-4-1호	상면? 하방형	460×409×80 (1.10) 축? 380×350×35 (1.09)	15 13	상토면	방형	중앙	1	84×84× (1.00)	상면식 (소토)	4주식 다수	?	남동 모서리	토단	‘나’지형	BC. 3400~3100년(B.C. 3250년) 2단골방(문사등식) 구릉사면 중단부 능선(해발 28m) 황주아파트. 점령문. 무문양 등의 토기편
			2-4-2호	상면 하방형	720×688×105 (1.08) 160×120×20(축) 310×280×35 (1.11)	38 +1 (39) 9	상토면	방형	중앙	1	86×68× (1.00)	상면식 (소토)	4주식	돌출식 (문사등식)	남벽 중앙	토단	‘나’지형	BC. 3400~3100년(B.C. 3250년) 2단 골방 구릉사면 중단부 산성평터면(해발 27m) 황주아파트. 사선문. 능형지사로. 점령문. 무문 양 등의 토기편
			1호	상면 하방형	770×650×100 (1.18) 축? 507×424×35 (1.20)	50 21	상토면	방형	중앙	1	90×72× (1.25)	상면식 (소토)	4주식 벽기주공	돌출식? (문사등식)	?	토단 수혈	‘나’지형? 6	BC. 3400~3100년(B.C. 3250년) 노지마사로 규모 중상복원 2단 골방(문사등식) 구릉사면 상단부 능선(해발 93.5m) 황단사문. 능적문. 황주아파트. 지선문.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석제 골자극(농경구). 연석과 여성 벽(이성 사광기문구)

시기	입지	유적명	유구 번호	주거지				노 지				주공	출입시절		기 타		패기	비고(보정연대)
				평면 형태	규모(㎡) (장단배)	면적(㎡)	바닥	평면 형태	위치	수량	규모(㎡) (장단배)		구조	구조	위치	형식		
11기	해안 구릉	당진 소소리	II-1A-1호	방형?	(462)×(400)×? (1.16)	(18)	성토면	타원형	중앙	1	123×72× (1.71)	상면식		?	북벽 중요?			BC. 3650~2830년(B.C. 3240년) 노지·주공아파트 규모 추정불완 구릉이면 중단부 평탄(해발 24m) 황주아파트·교차사선문·선문·무문양 등의 토 기편
			KC-47호	방형	640×540× (1.19)	35	성토면	원형	중앙	1		수혈식	4주시	돌출식 (대천리식)				BC. 3650~2350년(B.C. 3000년)
		보령 관창리 (D구역)	KC-52호	방형	(750)×700× (1.07)	(53)	성토면					4주시	돌출식 (대천리식)				노지아파트로 규모 추정불완	
			II-1호	방형	500×500×94 (1.00)	25	성토면	방형	중앙	1	113×108×20 (1.07)	수혈식 보조주공	4주시			구 남벽	BC. 3400~2800년(B.C. 3000년) 구릉 정상부 주변 평탄(해발 60m) 황주아파트·능형(단사)선문·사선문·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불경 토제품 석제 보습(농구)	
		홍성 동장리	II-2호	방형	452×442×70 (1.02)	20	성토면	부정형? (원형)	중앙	1	97×90×20 (1.08)	수혈식	4주시					BC. 3400~2800년(B.C. 3000년) 구릉 정상부 주변 평탄(해발 60m) 황주아파트(토기편)과 석제 보습(농구)
			II-3호	방형	820×818×84 (1.00)	67	성토면	방형 정방형	중앙 편제(남)	2	73×61×5 (1.20) 79×42×5 (1.88)	수혈식 수혈식 벽기주공	4주시				확대	BC. 3400~2800년(B.C. 3000년) 구릉 정상부 주변 평탄(해발 60m) 황주아파트·단사·선문·무문양 등의 토기편
		서산 양정리	I-1호	방형	286×280×25 (1.02)	8	성토면	타원형	중앙	1	54×36×7 (1.50)	수혈식	4주시					BC. 3380~3020년(B.C. 3200년) 구릉이면 중단부 능선(해발 43m) 단사·선문·황주아파트의 토기편
			KC-2호	방형	620×500× (1.24)	31	성토면	원형	중앙	1		수혈식						
		보령 관창리 (D구역)	KC-15호	방형	530×530× (1.00)	27	성토면	원형	중앙	1		수혈식						



시기	입지	유적명	유구 번호	주거지				노 지				주공	출입시설		기 타		비고(보정연대)
				평면 형태	규모(㎡) (정단면)	면적(㎡)	바닥	평면 형태	위치	수량	규모(㎡) (정단면)	구조	구조	위치	형식	기타	
11기	해안 구릉	홍성 상영리	1호	방형	(888)×710×95 (1:15) 205×93×92(축)	(68) +1 (69)	상토면	방형				불규칙	돌출식 (유사) 천리식	남벽 중앙	토단	‘느지형?’	B.C. 3100~2900년(B.C. 3000년) 돌출유적으로 규모 추정불원 구릉이면 중단부 상층(해발 70m) 사선문 · 진서문 · 단사선문 · 패각조성문 · 격자 문 · 횡자아골문 · 능선문 ·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골자구(옹구), 공(이시랑가공구) 등의 석기
			II-73호	방형	440×430×46 (1:02)	15	상토면	방형	중앙 판계(남동)	2	144×123×20 (1:17) 48×48×? (1:00)	수혈식 수혈식	돌출식	남동벽			구릉이면 상단부 능선(해발 47m) 횡자아골문(진서선문?),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솟 돌(옹구)
			II-75호	방형?	300×(270)×40 (1:11)	(9)	상토면	방형(상형) 방형(후형)	중앙 중앙	2	83×75×15 (1:11) 38×38×5 (1:00)	수혈식 ↓ 수혈식					노지바위토 규모 추정불원 구릉이면 상단부 능선(해발 40m) 횡자아골문(진서선문?), 능형사문 등의 토기편
		서산 가자리	I-1호	방형	472×354×11 (1:33)	17	상토면	방형	중앙	1	82×72×7 (1:14)	수혈식	4주식 2중	돌출 경사식?	남 모서리		구릉이면 중단부 상층(해발 19m) 횡자아골문 · 횡단사문 등의 토기편과 석도(옹구)
			I-2호	방형	400×336×30 (1:19)	13	상토면	방형	중앙	1	80×72×12 (1:11)	수혈식	4주식	돌출 경사식?	남벽 중앙		구릉이면 상단부 능선(표고 24m) 횡자아골문 · 단사(평행)사문 · 능형문 · 무문양 등 의 토기편
			I-3호	방형	500×484×18 (1:03)	24	상토면	방형	중앙	1	134×110×12 (1:22)	수혈식	4주식 2중	돌출 경사식?	등 모서리		구릉이면 상단부 상층(해발 24m) 횡자아골문 · 횡(사)선문 ·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석채(옹구)
		서산 가자리	II-1호	방형	430×329×34 (1:31)	14	상토면	방형									구릉이면 상단부 상층(해발 23.5m) 진서문(토기편)
			1-3-1호	방형계	308×(290)×22 (?)	(9)	상토면	방형	중앙	1	84×74×? (1:14)	사면식 양단식 (소토)	4주식	?	남벽?		노지바위토 하부규모 추정불원 대천리식? 구릉이면 중단부 상층(해발 31.5m) 횡자아골문 · 단사선문 등의 토기편

시기	입지	유역명	유구 번호	주거지				노 지				출입시설		기 타		폐기	비고(보정연대)		
				평면 형태	규모(㎡) (정단면)	면적(㎡)	바닥	평면 형태	위치	수량	규모(㎡) (정단면)	구조	주공	구조	위치			형식	기타
II기	해안 구릉	당진 가곡2리	1-3-2호	상방? 하방형?	640×(560)×45 (1.14) (축)? 400×368×35 (1.10)	(36)  15	성토면	원형	중앙	1	80×68×10 (1.18)	수혈식	벽주식 보조주공	토출식 (은사동식)?	남서벽	토단 수혈 (지장 ·자암) 3		2단 굴림(은사동식) 구릉사면 중단부 응진해발 28m) 각지문 토기편	
				상방? 하방형	상방? (축)? 428×400×37 (1.07)	?  17	성토면	원형	중앙	1	86×78×10 (1.13)	수혈식	4주식 보조주공	토출식 (은사동식)?	남서벽	토단 수혈 (지장 ·자암) ?	2	2단 굴림(은사동식) 구릉사면 중단부 응진해발 27m) 황진문 · 단사선문 · 능형진문 · 황주아굴문 · 사 각지문 · 사선문 등의 토기편과 연석 · 연석용	
			II-1호	반형	(564)×510×15 (1.11)	(29)	성토면	원형	중앙	1	111×89×17 (1.25)	수혈식	4주식 보조주공	수혈식					노지 · 주공아치로 규모 추정됨 구릉 정상부 평탄면(해발 28m) 다섯문 토기편
				반형	353×(331)×20 (1.07)	(12)	성토면	타원형	중앙	1	97×62×10 (1.56)	수혈식	4주식 보조주공	수혈식					노지 · 주공아치로 규모 추정됨 구릉사면 상단부 응진해발 20m) 토기편
			I-1호	반형	408×336×30 (1.03)	16	성토면	타원형	중앙	1	62×40×10 (1.55)	수혈식	4주식	수혈식					구릉 정상부 주면 응진해발 25m) 진선문 · 능형문 · 평열문 · 무문양 등의 토기편
				반형	339×290×28 (1.17)	10	성토면	원형	중앙	1	62×62×5 (1.00)	수혈식	4주식	수혈식	수혈	1			구릉 정상부 평탄면(해발 20m) 황주아굴문 토기편과 연석(상곡기굴구)
			I-1-2-1호 (47기)	반형	309×280×35 (1.10)	9	성토면	원형	편제(남서)	1	69×69×17 (1.00)	수혈식 (점토피)		수혈	1				구릉사면 중단부 평탄면(해발 60m) 황주아굴문 · 능형진문 등의 토기편
				1호	반원형?	(450)×(400)× (1.13)	(7)	성토면	장방형	중앙	1	90×60× (1.50)	상방식 (소토)						마지구배총: B.C. 2450~1880년(B.C. 2170년) 전파시설? 구릉사면 중단부 채물 내(해발 11m) 황주아굴문 · 무문양 등의 토기편과 어망추 · 누시 취(상아토구) · 굴지(능곡구) 등의 석기
III기	해안 구릉	군산 오사도동 (노래섬)	1호	반원형?	(450)×(400)× (1.13)	(7)	성토면	장방형	중앙	1	90×60× (1.50)	상방식							

시기	입지	유적명	유구 번호	주거지				노 지				출입시설		기 타		폐기	비고(보정연대)
				평면 형태	규모(㎡) (장단배)	면적(㎡)	바닥	평면 형태	위치	수량	규모(㎡) (장단배)	구조	구조	위치	형식	기타	
불명	하안 구릉	아산 양학동 (가래골)	1-1호	방형?	351×339×10 (1.04)	(12)	생토면	원형	중앙	1	73×72×20 (1.19)	수혈식					노지위주로 규모 추정복원 구릉이면 하단부 평면(연대할 42m) 진산문·무문양의 토기편
		천안 백석동 (고제미골)	1호	방형	440×431×13 (1.01)	19	생토면	타원형?	중앙	1	?	수혈식?					구릉이면 상단부 등산(해발 75m) 황산문 토기편과 연석(광기공구)
	하안 구릉	당진 가곡리	1호	원형	320×294×30 (1.09)	7	생토면										구릉이면 최하단부(해발 12m) 황자대문 토기편
		보령 관항리 (은구역)	KC-002호	원형	600×420×43 (1.43)	20	생토면								구 수혈	1 3	단사문·황자대문·시작대문 등의 토기편

\* 규모에서 (장)방형은 장변×단변×깊이, (타)원형은 정지름×단지름×깊이로 하였다.

\*\* 규모와 면적에서 ( )의 숫자는 현재 남아 있는 최대치이거나 추정복원한 수치이다.

규모의 단위는 cm, 면적의 단위는 m<sup>2</sup>이다.

\*\*\* 장단배가 1.5 미만은 원형과 방형, 1.5 이상은 타원형과 장방형으로 하였다.

\*\*\*\* 노지위치는 출입시설을 제외한 주거공간의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에 편제로 하였다.

## 2. 상대편년

현재 한강수계에 해당되는 중서부지방의 신석기시대 편년에 대한 연구로는 다나카 소이치 田中聰<sup>1)</sup> 임상택<sup>2)</sup>, 김장석·양성혁<sup>3)</sup>, 구자진<sup>4)</sup>, 소상영<sup>5)</sup> 등이 대표적이다.

표 5. 중부지방 신석기시대 편년 연구

田中聰 <sup>1)</sup>			임상택			김장석·양성혁		구자진		소상영	
연대(B.P.)	대동강	한강·경기만	I기 (전기)	후반		I기		I기		I기	
전기 (6000~5300)	1기	1기			B.C. 3600년	II기	B.C. 3500 ~3000년				B.C. 3600년
	2기		II기 (중기)	전반	B.C. 3400년				B.C. 3500년		
		2기		후반	B.C. 3100년			II기		II기 (전반)	
	3기			전엽	B.C. 2900년				B.C. 3000년		B.C. 3000년
중기 (5300~4300)	4기	3기	III기 (후기)	중엽	B.C. 2600년	II기		III기		II기 (중반)	
	5기	4기		후엽	B.C. 2300년						B.C. 2600년
후기 (4300~3300)	6기	5기	IV기(만기)							II기 (후반)	

다나카 소이치는 대동강유역과 한강·경기만유역으로 구분하고, 토기의 형태와 문양 등을 기준으로 각각 6단계와 5단계로 구분하였다. 임상택은 중서부지역을 토기문양의 형태·구성·배치 등을 중심으로 I(전기)·II(중기)·III(후기)·IV(만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기존의 공산문화 1~4기와 중서부 전·중·후기 구분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공산문화 1·2기를 I기의 전반과 후반으로, 공산 4기와 중서부 후기의 늦은 시기는 III기와 IV기로 구분하였

1 다나카 소이치田中聰, 「한국 중·남부지방 신석기시대 토기문화 연구」(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 278.

2 임상택, 「신석기시대 서해중부지역 상대편년과 취락구조의 특징」, 『한국상고사학보』 70(2010), p. 33.

3 김장석·양성혁, 「중서부 신석기시대 편년과 패총 이용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고학보』 45(2001), pp. 37-39.

4 구자진, 「신석기시대 주거와 취락연구」(서울: 서경문화사, 2011), pp. 53-62.

5 소상영, 「14C연대 분석을 통한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 편년 연구」, 『한국고고학보』 89(2013), pp. 32-39.

다. 다시 Ⅱ기는 전·후반으로, Ⅲ기는 전·중·후엽으로 세분하였다. 김장석·양성혁은 토기 문양의 지역성과 절대연대 등을 중심으로 토기의 형식을 시기차가 아닌 지역차로 보면서 임상택의 세분된 편년을 통합하여 B.C. 3500~3000년을 기준으로 I·Ⅱ기로 구분하였다. 구자진은 기존의 지역별 상대편년 연구성과를 토대로, 주거지의 변화는 더디게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주거지 유적을 I·Ⅱ·Ⅲ기로 구분하였다. I·Ⅱ기는 B.C. 3500년, Ⅱ·Ⅲ기는 B.C. 3000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소상영은 각 주거지별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을 기준으로 크게 I·Ⅱ기로 구분한 뒤, Ⅱ기를 주거지의 입지와 토기문양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전·중·후반으로 세분하면서, I기는 전기, Ⅱ기 전반은 중기, Ⅱ기 중·후반을 후기로 분기설정 하였다. 신석기 시대 중서부지방의 편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임상택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AMS 분석결과를 알 수 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한 상대편년에 대하여, 주거지 구조가 출토유물에 비해 변화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지역에 따라 3기로 구분한 구자진의 견해<sup>6)</sup>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I기는 ~B.C. 3500년, Ⅱ기는 B.C. 3500~3000년, Ⅲ기는 B.C. 3000년~ 등으로 비정<sup>7)</sup>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보정연대<sup>8)</sup>는 각 주거지별 중심연대를 기준으로 하였고, 중심연대가 같은 경우에는 상한연대와 하한연대를 순차적으로 반영하였다.

### Ⅲ. 주거지 구조 분석

이 장에서는 금강수계의 지역별 취락과 주거지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금강수계에서는 51개소의 주거지 유적에서 94<sup>9)</sup>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I기는 8기(해안·도서지역 8기), Ⅱ기는 72기(내륙지역 18기, 해안·도서지역 54기), Ⅲ기는 9기(내륙지역 8기, 해안·도서지역 1기), 불명 5기(내륙지역 1기, 해안·도서지역 4기)이다.

#### 1. 입지

금강수계에서의 주거지 입지는 금강 상류의 지류인 정자천변의 충적대지에 입지한 진안

6 구자진, 앞의 책(2011), pp. 53-62.

7 본고에서는 AMS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AMS 분석결과와 보고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AMS 분석결과를 우선으로 하였다. 또한 AMS 분석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8 보고서 미 발간 등으로 개별 주거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악 가능한 속성만 일부 분석 시 포함시켰다.

9 보고서 미 발간 등으로 시기를 알 수 없는 불명과 구조면에서 불확실한 것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갈용리(갈머리)<sup>10)</sup>와 모정리(진그늘)<sup>11)</sup> 2개소, 금강 남안의 자연제방에 입지한 세종 대평동<sup>12)</sup> 1개소를 제외하면 모두 내륙의 하안 또는 해안구릉에 입지하고 있다.

## 2. 평면형태

평면형태<sup>13)</sup>에서 방형과 장방형, 원형과 타원형의 경계기준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김도경<sup>14)</sup>은 1:1.3, 김진희<sup>15)</sup>는 1:1.5와 1:2를 기준으로 3유형으로, 이상복<sup>16)</sup>과 김재은<sup>17)</sup>은 1:1.5, 이승운<sup>18)</sup>은 1:1.2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1:1.5로 하였다.

표 6. 주거지의 평면형태 분석

형태	시기 지역	I기			II기			III기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방형	일반		1	1	1	22	23	1		1	25
	유사대천리식				1	4	5				5
장방형	일반				1	4	5				5
	대천리식				5	2	7	3		3	10
(반)원형 <sup>19)</sup>			6	6	5	3	8	3	1	4	18
상하장방형(대천리식+토단) <sup>20)</sup>					2	1	3				3
상방해(장방형(운서동식) <sup>21)</sup>					1	6	7				7
상원하방형(운서동식)			1	1		4	4				5
계			8	8	16	46	62	7		8	78

10 호남문화재연구원, 『갈머리 유적 -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3』(2003).

11 조선대학교박물관, 『진안 진그늘 선사유적』(2005).

12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연기 대평리 유적 - 행정중심복합도시부지내 3-1-C지점』(2012).

13 평면형태 중 외부로 돌출된 출입시설이 마련된 경우에는 주거공간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였다.

14 김도경, 『한국 고대 목조건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동양미술사학』 창간호(2000), p. 96.

15 김진희, 『한반도 신석기시대 주거지에 대한 연구 - 중서부지역 주거 복원을 중심으로』(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 48-49.

16 이상복, 『인천 운서동 I (본문2) -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내(I 구역)』(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p. 414.

17 김재은, 『신석기시대 집터 연구 - 경인지방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 41.

18 이승운, 『중서부지방의 신석기시대 주거지에 대한 일 연구 - 내부구조를 중심으로』, 『고고학』 7-2(2008), pp. 8-9.

19 (반)원형은 반원형과 원형을 통칭한 것으로, 반원형은 군산 오식도동 가도와 노래섬에서만 확인된 특이한 형태이다.

20 '대천리+토단'은 평면형태는 대천리식과 같으나, 상부에 토단이 마련된 유형을 별도로 명명하였다.

내륙지역(이하 '내륙'이라 칭함)은 I기는 확인된 예가 없어 변화양상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장방형(52%)이 우세하다. II기 이후에는 대천리식과 운서동식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운서동식으로 볼 수 있는 신관동 주거지는 II기 중 다소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 해안·도서지역(이하 '해안·도서'라 칭함)은 전체적으로 방형(64%)이 우세하지만 이른 시기에는 반원형이 우세하다. 운서동식에 해당되는 태안 달산리 주거지는 II기로 보고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AMS 측정결과(B.C. 5990~5840년/B.C. 5920년)<sup>22)</sup>를 기준으로 I기에 포함시켰다.

금강수계의 평면형태는 시기불명의 청주 황탄리(바리미골)<sup>23)</sup>의 타원형을 제외하면, 방형·장방형·(반)원형 등이 확인되었다. 이른 시기는 해안·도서에서만 방형과 (반)원형이 확인되었고, II기 이후에는 소위 '대천리식'의 장방형이 나타나는데, 방형(52%)이 다소 우세한 양상이다. 특히 서해중부지역을 대표하는 '운서동식'은 내륙은 II기, 해안·도서는 I기에서 확인되었는데, 금강수계와 서해중부 도서지역과의 관계 및 '운서동식'의 발생과 전파경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된다.

### 3. 면적

면적은 집단의 규모나 주거지 내의 구성원 수, 그리고 생업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 면적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는 김진희<sup>24)</sup>·홍성수<sup>25)</sup>·이승운<sup>26)</sup>·김재은<sup>27)</sup> 등이 제시한 자료가 있다.

21 '운서동식 주거지'는 서해 중북부지역의 가장 이른 시기를 대표한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방형이고, 규모는 4~6m이다. 노지는 수혈식으로, 약간 편재하며, 주공은 4주식의 배치가 기본이다. 또한 출입시설은 한쪽 벽 일부가 돌출된 구조로, 지형과 풍향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다. 주공간의 벽 상부에는 침상시설과 단시설이 마련된 2단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구자진, 앞의 책(2011), pp. 120-122 참조. 그러나 본고에서는 침상과 단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흙으로 된 단층이란 의미로 토단이라 명명하였다.

22 태안 달산리 주거지의 AMS 측정치는 '운서동식 주거지'로 대표되는 인천 운서동 유적에서 가장 빠른 3호(B.C. 3960~3710년/B.C. 3840년)보다 빠르게 산출되어 추후 손후관계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고고학연구소, 『태안 달산리 유적 -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2012), p.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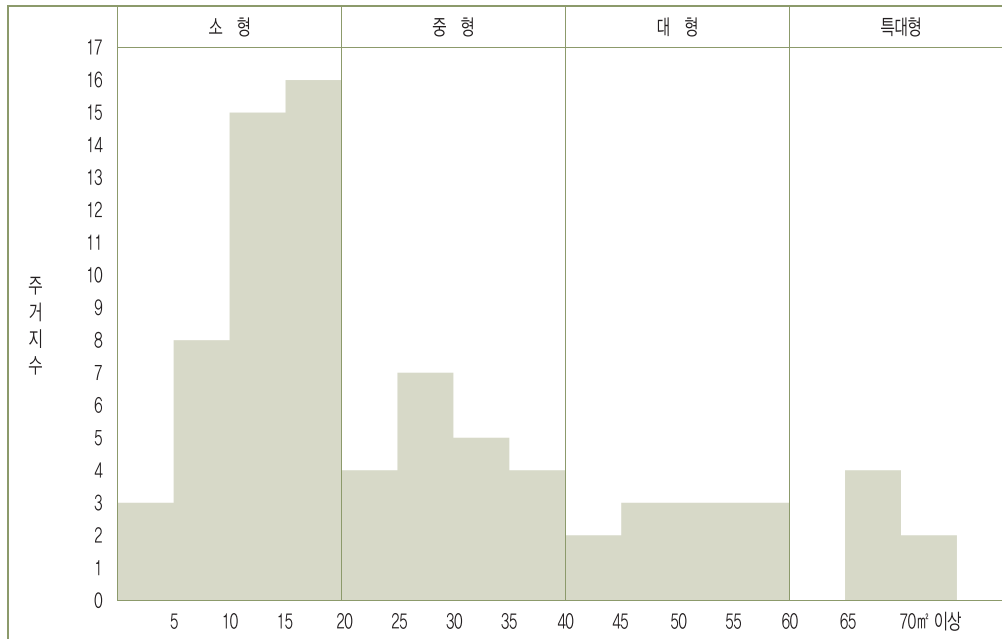
23 한국고고환경연구회, 『청원 황탄리 바리미골유적』(2012).

24 중서부지역 주거지 면적 분류에서 방형계는 21㎡ 이하를 소형, 22~40㎡를 중형, 41~60㎡를 대형 등으로 나누었다. 원형계는 26㎡ 이하를 소형, 27~60㎡를 중형, 61㎡ 이상을 대형 등으로 나누었다. 김진희, 앞의 논문(2008), pp. 50-53.

25 중서부지역 주거지 면적 분류를 1~20㎡는 소형, 21~40㎡는 중형, 41~60㎡는 대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홍성수, 『한반도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집터의 변화양상』(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 30.

26 주거지 면적 분류를 17㎡ 미만은 소형, 17~27㎡ 미만은 중소형, 28~36㎡ 미만은 중형, 37~54㎡는 중대형, 55㎡ 이상은 대형 등으로 나누었다. 이승운, 앞의 논문(2008), pp. 10-11.

27 주거지 면적 분류를 20㎡ 이하의 소형, 21~40㎡는 중형, 41㎡ 이상은 대형 등으로 나누었다. 김재은, 앞의 논문(2013), p. 41.



도 1. 주거지의 면적 분포도

위 분포도에서 보면, 한강수계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면적에 대한 분류<sup>28)</sup>는 0~20m²는 소형, 21~40m²는 중형, 41~60m²는 대형, 61m² 이상은 특대형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면적<sup>29)</sup>과 주거지 평면형태<sup>30)</sup>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7. 주거지의 면적 분석

면적	형태	시기	I기			II기			III기			계
		지역	내륙	해안·도서	소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소형 (20m² 이하)	방형			1	1	2	18	20				41
	장방형					1	2	3				
	(반)원형			4	4	5	4	9	3	1	4	
	소계			5	5	6	24	32	3	1	4	

28 본고에서 면적의 분류에 활용한 자료는 상태가 양호하거나 추정 복원이 가능한 79기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29 면적은 노지나 주공의 위치로 규모의 추정복원이 가능한 것까지 포함시켰고, 대천리식 및 운서동식 주거지의 면적은 출입시설의 공간을 포함한 수치이다.

30 평면형태는 주거지 유형과는 무관하게 순수 형태로 분류하였으며, 2단 굴광의 경우에는 상부의 면적과 형태를 기준으로 하였고, 반원형은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원형에 포함시켰다.



중형 (21~40㎡)	방형					11	11	1		1	20
	장방형					3	3	1		1	
	(반)원형		1	1	2	1	3				
	소계		1	1	2	15	17	2		2	
대형 (41~60㎡)	방형				1	2	3	1		1	11
	장방형				4		4	1		1	
	(반)원형		1	1		1	1				
	소계		1	1	5	3	8	2		2	
특대형 (61㎡ 이상)	방형				1	3	4				6
	장방형				1	1	2				
	소계				2	4	6				
계			7	7	15	46	63	7	1	8	78

면적은 소형(51%) · 중형(26%) · 대형(14%) · 특대형(8%) 등이 확인되었는데, 내륙에서는 아직까지 I기의 예는 확인된 예가 없다. 소형은 시기 · 지역 · 평면형태와는 무관하게 고르게 이용되면서 우세하다. 중형은 I기에 해안 · 도서의 원형 1기뿐이고, II기는 내륙에서 원형만, 해안 · 도서는 평면형태와는 무관하게 확인되지만, 방형이 우세하다. III기는 내륙에서만 방형계가 확인되었다. 대형은 I기에 해안 · 도서의 원형 1기뿐이고, II기는 내륙은 방형계, 해안 · 도서는 방형과 원형, III기는 내륙에서 방형계만 확인되었다. 특대형은 두 지역 모두 II기에 한정되면서 방형계에서만 확인되었다. 특히 내륙지역의 익산 신용리(갯점)<sup>31)</sup> 1호(B.C. 3340~2920년/B.C. 3130년)는 대천리식에 ‘ㄷ’자형의 좁은 토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면적 또한 150㎡의 초대형 주거지로 주목된다. 한편 옥천 대천리 주거지는 AMS 분석결과 B.C. 3520~2550년(B.C. 3040년)로 산출되어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추후 선후관계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 4. 내부시설

현재까지 조사된 대부분의 주거지 바닥에서는 노지와 주공이 확인되고 있다. 노지는 주로 집안의 조명 · 난방 · 습기 제거 · 데우기 등, 주공은 지붕의 보나 도리 따위를 받치거나 벽체를 구성하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외에도 출입이나 저장, 작업 등을 위

31 원광대학교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익산 신용리 갯점 유적 - 익산 서동마 농촌 테마공원 조성부지 내』(2014).

한 기타 부속시설이 다양하게 마련된 흔적도 남아 있다.

## 1) 노지

### (1) 평면형태

노지의 평면형태<sup>32)</sup>는 주거지의 평면형태의 구분과 같은 1:1.5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부정형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주거지와 노지의 평면형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8. 노지의 평면형태 분석

형태	주거지	시기 지역	Ⅰ기			Ⅱ기			Ⅲ기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원형	방형			1	1	2	29	31	1		1	54
	장방형					3	5	8	1		1	
	(반)원형			3	3	3	5	8	1		1	
	소계			4	4	8	39	47	3		3	
타원형	방형						4	4				12
	장방형						3	3				
	(반)원형			4	4		1	1				
	소계			4	4		8	8				
방형	방형						4	4	1		1	10
	장방형					4		4				
	(반)원형						1	1				
	소계					4	5	9	1		1	
장방형	방형					2	1	3				4
	장방형											
	(반)원형									1	1	
	소계					2	1	3		1	1	
계				8	8	14	53	67	4	1	5	80

노지의 형태는 원형(68%) · 타원형(15%) · 방형(13%) · 장방형(5%) 등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지역이나 시기와는 무관하게 원형이 우세한데, 주거지 평면형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I

32 장단비가 1.5 미만은 원형과 방형, 1.5 이상은 타원형과 장방형으로 하였다.

기는 해안·도서에서만 확인되었는데, 원형과 타원형이 있다. Ⅱ기는 다양한 형태가 혼용되었는데, 내륙에서는 타원형이 없고, 원형은 방형·장방형·원형 주거지, 방형은 장방형 주거지, 장방형은 방형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해안·도서는 원형·타원형·방형·장방형(4개가 전부임) 모두 확인되었다. 원형과 타원형은 방형·장방형·원형 주거지, 방형은 방형·원형 주거지, 장방형은 방형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Ⅲ기는 원형과 방형이 확인되었는데, 원형은 방형·장방형·원형주거지, 방형은 방형주거지에서만 확인되었다. 해안·도서는 반원형 주거지의 장방형 1기뿐이다.

## (2) 위치와 수량<sup>33)</sup>

표 9. 노지의 위치와 수량 분석

내용		시기 지역	Ⅰ기			Ⅱ기			Ⅲ기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1개	중앙			2	2	6	30	36	2	1	3	41
	편재					7	9	16	4		4	20
	중앙(2)						1(2)	1(2)				10(20)
2개	중앙(1)+편재(1)						7(14)	7(14)				
	편재(2)			1(2)	1(2)	1(2)		1(2)				
4개	편재(4)			1(4)	1(4)							1(4)
계				4(8)	4(8)	14(15)	47(55)	61(70)	6	1	7	72(85)

내륙은 Ⅰ기의 예는 확인되지 않았고, Ⅱ기 이후 중앙·편재·편재(2개)가 혼용되었으나, 시기와는 무관하게 편재(59%)가 다소 우세하다. 해안·도서는 Ⅰ기는 중앙·편재(2개)·편재(4개)가 혼용되었고, Ⅱ기는 중앙·편재·중앙(2개)·중앙+편재 등이 혼용되었는데, 중앙(61%)이 우세하다.

노지의 위치와 수량은 중앙·편재·중앙(2개)·중앙+편재·편재(2개)·편재(4개) 등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중앙(58%)이 우세하지만, Ⅱ기에는 중앙(61%)이 우세하다가 Ⅲ기에는 편재(57%)가 다소 우세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 (3) 구조

노지의 구조로는 주거지 내부 바닥을 일정한 크기로 얇게 파낸 뒤, 수혈 둘레를 돌로 둘러

33 노지의 수량에서 1개인 경우에는 수량 표시를 생략하였다.

만든 위석식, 주거지 내부 바닥을 일정한 깊이로 파낸 수혈식, 주거지 내부 바닥을 일정한 크기로 파낸 뒤, 수혈 안에 돌을 깔거나(부석식) 채운(적석식·집석식) 적석식<sup>34)</sup> 등이 일반적이다. 또한 돌을 채운 적석식은 주로 동시기의 단독 또는 다른 노지와 함께 야외노지에서 확인되는 구조이다. 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소성을 위한 토기요’<sup>35)</sup>와 ‘조리를 위한 시설’<sup>36)</sup>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주거 내의 노지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그러나 금강수계에서는 아직까지 적석식은 확인된 예가 없는데, 특이하게 바닥을 파거나 돌을 이용하지 않고 주거지 바닥면을 그대로 활용한 상면식과 수혈식이나 상면식 주위에 점토피를 돌린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

표 10. 노지의 구조 분석

내용	시기 지역	I기			II기			III기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1개	위석식		1	1	1		1	1		1	3
	수혈식(+점토피·소토)		1	1	10	30	40	4		4	45
	상면식(+점토피·소토)		1	1	2	9	11	1	1	2	14
2개	위석식(2)		1(2)	1(2)		1(2)	1(2)				2(4)
	수혈식(2)				1(2)	6(12)	7(14)				7(14)
	수혈식+상면식					1(2)	1(2)				1(2)
4개	위석식(4)		1(4)	1(4)							1(4)
소계			5(9)	5(9)	14(15)	47(55)	61(70)	6	1	7	73(86)

내륙은 I기의 예는 없고, II기 이후에는 위석식·수혈식(1·2개)·상면식 등이 혼용되었다. 전체적으로 수혈식(75%)이 우세하고, III기에는 1개씩만 확인되었다. 해안·도서는 I기에 위석식(1·2·4개)·수혈식·상면식 등이 혼용되었으나, II기는 위석식(1개)은 없으며, III기는 상면식만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수혈식(68%)이 우세하지만, 선호도가 위석식→수혈식→상면식으로 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노지의 구조는 위석식(1·2·4개)·수혈식(1·2개)·상면식·수혈식+상면식 등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수혈식(71%)이 우세하지만, 해안·도서는 선호도가 위석식→수혈식→상면식으로 변화한 양상을 보인다.

34 각 보고서에서 명명한 적석식·집석식·부석식 등은 모두 적석식으로 통일하였다.

35 배성혁, 「신석기시대의 토기요 연구」, 『한국고고학보』 62(2007), pp. 4-45 참조.

36 홍은경, 「신석기시대 야외노지에 대하여」, 『고고학』 10-2(2011), pp. 5-32 참조.

## 2) 주공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주거지 내부바닥에서 확인되는 주공 구조는 지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심주공과 이를 보조하거나 내부시설 등과 관련이 있는 보조주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의 종류로는 주거지 벽에서 조금 떨어지거나 중앙 노지를 중심으로 네모지게 또는 네모서리에 각각 배치되는 주주식, 벽을 따라 배치되는 벽주식, 주거지 중앙에 1개가 배치되는 중주식, 주거지 바닥에서 주공이 확인되지 않는 무주식<sup>37)</sup>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주주식은 4주식·6주식·9주식 등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4주식이 일반적이다. 무주식은 주거지 내·외부 바닥에 주공을 파지 않고 바닥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초석礎石을 받치고 기둥을 세웠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주거지가 하천 가까운 곳에 입지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하천의 범람 등의 요인으로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주공과 주거지의 면적과의 관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11. 주거지의 주공 분석

주공	면적	시기 지역	Ⅰ기			Ⅱ기			Ⅲ기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4(6)주식 (+보조주공, 벽가주공, 2중 주공)	소형			1	1	5	16	21				44
	중형						9	9	1		1	
	대형					4	3	7				
	특대형					2	3	5				
	소계			1	1	11	31	42	1		1	
벽주식	소형											3
	중형					1	1	2				
	소계					1	1	2			1	
중주식(+반원배치)	소형			2	2							2
계				3	3	12	32	44	2		2	49

주공은 4(6)주식(90%)·벽주식(6%)·중주식(4%) 등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시기나 면적과는 무관하게 4주식이 우세하다. 4주식은 면적과는 무관하게 고르게 이용되었는데, 주거지의 네 모서리 또는 중앙 노지를 중심으로 방형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중심주공 외에 보조주공, 벽가주공, 2중 주공 등이 부가되기도 한다. 벽주식은 두 지역 모두 Ⅱ기 이후에 소형이나 중형

37 본고에서는 일단 주공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무주식으로 하였지만, 무주식과 주공이 불규칙하게 확인된 주거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주거지에 이용되었다. 중주식은 해안·도서의 I기에 해당하는 군산 오식도동 가도<sup>38)</sup> 3호와 4호(반원형 야영지)에서만 확인되었는데, 주거지 중심 주공을 중심으로 반원형의 벽주식이 혼용된 형태의 특이한 구조다.

### 3) 출입시설

표 12. 주거지의 출입시설 분석

구조	시기 지역	I기			II기			III기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내륙	해안·도서	소 계	
돌출경사식						6	6	1		1	7
대천리식(+토단) <sup>39)</sup>					6	5	11	2		2	13
유사대천리식					2	4	6	1		1	7
운서동식			1	1	1	7	8				9
계			1	1	9	22	31	4		4	36

내륙은 I기의 예가 없고, II기 이후 대천리식(62%)·유사대천리식(23%)·운서동식(8%)·돌출경사식(8%) 등이 혼용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시기와는 무관하게 대천리식이 우세하다. 대천리식과 유사대천리식은 III기까지 유지된 반면, III기에는 운서동식은 확인되지 않고, 새로이 돌출경사식이 나타난다. 해안·도서도 대천리식(22%)·유사대천리식(17%)·운서동식(35%)·돌출경사식(26%) 등이 혼용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지만, 운서동식이 다소 우세하다. 이른 시기에 나타난 운서동식은 III기에는 보이지 않고, II기에는 다양한 구조가 혼용되었다.

출입시설은 대천리식(36%)·유사대천리식(19%)·운서동식(25%)·돌출경사식(19%) 등이 혼용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시기와는 무관하게 대천리식이 우세하다. 내륙은 II기부터 확인되는 반면, 해안·도서는 I기에서 II기까지 확인되고 있다. 한편 두 지역 모두 II기에는 다양한 구조가 혼용되었는데, 돌출경사식은 해안·도서→내륙의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다.

출입시설의 위치는 난방이나 조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햇볕이 잘 드는 남쪽이나 남동·남서쪽에 설치된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청주 봉명동<sup>40)</sup> 1호와 서산 기지리(101-3번

38 충남대학교 박물관, 『가도패총 - 군장국가공단조성지역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III』(2001).

39 익산 신용리(갯집) 1호와 같이 평면형태는 '대천리식'과 동일하지만 주공간 상부에 토단이 마련된 경우는 출입시설에서는 '대천리식'으로 분류하였다.

40 충북대학교박물관, 『청주 봉명동 유적(III) - IV지구 조사보고 ②』(2004).

지)<sup>41)</sup> I-3호는 동쪽, 옥천 대천리<sup>42)</sup>와 청주 쌍청리<sup>43)</sup>는 서쪽, 당진 소소리<sup>44)</sup> 1호는 북쪽으로 출입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주거지 입지의 지형에 따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 4) 기타

신석기시대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노지와 주공, 출입을 위한 시설 외에도 대부분의 주거지 내·외부에서는 크고 작은 수혈이 확인되고 있는데, 저장용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금강수계에서는 토단·벽구·칸막이시설용 주공 등이 확인되었다. 토단은 ‘운서동식 주거지’와 일부 ‘대천리식 주거지’에서 ‘一’자·‘ㄱ’자·‘ㄷ’자 등의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고 있는데, 주로 선반 등의 용도로 보고 있다. 이러한 토단 시설은 최근 영종도 내 유적 발굴조사에서 많이 확인되어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up>45)</sup> 한편 칸막이시설용 주공은 주로 ‘대천리식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특징인데, 주거 내부의 공간분할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거지의 바닥이나 벽면처리는 군산 오식동(가도)<sup>46)</sup> 3호와 계룡 용동리<sup>47)</sup> 1호가 점토다짐, 아산 장재리(안강골)<sup>48)</sup> 6-2~4호가 퇴적토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퇴적토나 생토면 이용의 경우는 바닥이나 벽면 등에 점토다짐 등의 다른 시설이나 생토면 위에 풀이나 짐승가죽 같은 것을 깔고 생활했을 가능성도 있다.

## IV. 금강수계 수혈주거지 특징

이 장에서는 지역·시기별 주거지의 유사성과 상이성 및 상호 교류관계를 도출해봄으로써, 한강수계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별 변화양상은 <표 13~14>, 시기별 변화양상은 <표 15~17>과 같고, 토기에 대한 특징은 소상영<sup>49)</sup>과 임상택<sup>50)</sup>의 내용을 참

41 공주대학교박물관, 『해미 기지리 유적 - 서산 00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2009).

42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 『옥천 대천리 신석기유적』(2003).

43 국립청주박물관, 『청원 쌍청리 주거지』(1993).

44 충청남도역사문화원, 『당진 석우리·소소리 유적 - 당진 합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2011).

45 김창익, 「수혈주거지의 각종 부속시설(棚狀시설 및 bed狀시설)」, 『수혈건물지 조사방법론』(서울: 춘추각, 2004).

46 충남대학교박물관, 앞의 책(2001b).

47 공주대학교박물관, 『계룡 용동리 유적』(2011).

48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 I - 아산 배방 택지개발 사업지구(1단계) 내 발굴조사보고서 II』(2008).

49 소상영, 앞의 논문(2013), p. 41.

50 임상택, 앞의 논문(2010), p. 33.

고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금강수계는 구자진<sup>51)</sup>의 지역권 설정에서 충청내륙지역과 중서부 해안의 충남해안지역에 해당된다.

## 1. 지역별 변화양상

### 1) 내륙지역

표 13. 시기별 변화양상

특징 \ 시기		I 기	II 기	III 기
입지		?	구릉 위주 > 충적대지	구릉 위주 > 충적대지
취락 규모		?	1~4기	1~2기
주거지	평면형태	?	장방형 > 원형 > 방형	장방형 > 원형 > 방형
	면적	?	소형(원형)방형>장방형) > 대형 (장방형)방형) > 중형(원형) · 특대형(방형 · 장방형)	소형(원형) > 중형(방형 · 장방형) · 대형(방형 · 장방형)
	바닥처리	?	생토면 위주 > 점토다짐	생토면
	노지	평면형태(주거지)	원형(장방형 · 원형)방형) > 방형(장방형) > 장방형(방형)	원형(방형 · 장방형 · 원형) > 방형(방형)
		위치	편재 > 중앙	편재 > 중앙
		수량	1개 위주 > 2개	1개
		구조	수혈식 위주 > 상면식 > 위석식	수혈식 위주 > 위석식 · 상면식
	주공	?	4(6)주식(소형)대형>특대형) > 벽주식(중형)	4(6)주식(중형) · 벽주식(중형)
	출입시설	?	돌출식(대천리식)유사대천리식)운서동식)	돌출식(대천리식)유사대천리식)경사식)
	기타 부속시설	?	수혈 · 토단 · 벽구 · 칸막이시설용 주공	수혈
유적		?	계룡 용동리 1·2호 공주 신관동 1호 대전 관평동 I-1호 · II-1호 세종 소담동 KC-001호 영동 한곡리 A-1호 옥천 대천리 1호 익산 신용리(갯점) 1·2호 정주 효자동 E-1호 진안 갈용리(갈머리) 1·2호 진안 모정리(진그늘) 1~3호 · 'ㄷ'형 유구 청주 가락리 1호	세종 대평동 C-가-1호 익산 웅포리 I-1호 청주 쌍청리 2호 청주 영하리 1호 청양 학암리 1호 청주 봉명동 IV-C-1·2호

51 구자진, 앞의 책(2011), pp. 53-62 참조.



내륙의 경우, I기는 예가 없어 이른 시기의 양상은 파악하기 어렵다. 입지는 II기 이후 충적대지와 구릉에 입지하며, 구릉이 우세하다. 취락 규모는 1~4기 정도의 규모에서 1~2기로 축소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평면형태는 II기 이후 장방형·원형·방형 등이 확인되는데, 시기와는 무관하게 장방형이 우세하다. 면적은 II기 이후 소형·중형·대형·특대형 등이 확인되는데, 소형이 우세하다. 소형은 평면형태와는 무관하게 고르게 이용되었고, 중형은 II기에는 원형, III기에는 방형과 장방형, 대형과 특대형은 방형계만 확인되었다. 노지의 평면형태는 타 원형을 제외하고 원형·방형·장방형 등이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의 형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원형은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무관하게 고르게 이용되면서, 전체적으로 우세하다. 장방형은 II기에 한정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치는 일반적으로 시기와는 무관하게 중앙과 편재가 혼용되었는데, 편재가 우세하다. 수량은 1개와 2개가 혼용되다가 1개로 변하는 양상을 보인다. 구조는 수혈식·위석식·상면식 등이 혼용되었는데, 시기와는 무관하게 수혈식이 우세하다. 주공은 4(6)주식과 벽주식이 혼용되었는데, 4주식이 우세하다. 4주식은 면적과는 무관하게 고르게 이용되었으나, 벽주식은 소형과 중형에서 확인된다. 출입시설은 평면형태와 관련된 시설로, 돌출식의 대천리식·유사대천리식·운서동식 등이 확인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대천리식이 우세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내륙지역에서 확인되는 소위 ‘대천리식’과 ‘유사대천리식’이 확인된 다른 지역의 유적(도 2)으로는 임진강수계의 파주 대능리(I기?)<sup>52)</sup>, 서해중남부 해안지역의 보령 관창리(B.C. 3030년)<sup>53)</sup>, 예산 목리<sup>54)</sup>·홍성 상정리(B.C. 3000년)<sup>55)</sup>·송월리(B.C. 3070년)<sup>56)</sup>, 서해중북부 도서지역의 인천 운북동(B.C. 3000년)<sup>57)</sup>·운서동 I(II기?)<sup>58)</sup>·중산동4(B.C. 2760년)<sup>59)</sup>·안산 대부북동<sup>60)</sup>, 동해중부 해안지

52 강세호 외, 「파주 대능리 유적 - 파주 조리~법원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 『중부고고학회 2014년도 유적조사 발표회 자료집』(2014), pp. 288-295.

강세호, 「임진강유역의 신석기시대 취락」, 『한국신석기학회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 2015 경기도자박물관 <빛살무늬 6000년 경기도자의 첫걸음>전 기념』(2015), pp. 47-48.

대능리 주거지는 I기로 보고로 보고되어 있는데, 아직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본 고찰에서는 시기불명으로 일부만 소개하였다. 보고서 발간 이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53 충남대학교박물관, 『보령 관창리 유적』(2001).

54 충청남도역사문화원, 『홍성 신정리·예산 목리 유적 -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2~4지점 건설사업부지 내』(2013).

55 충청문화재연구원, 『홍성 장척리·상정리 유적』(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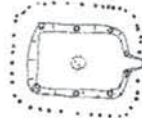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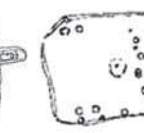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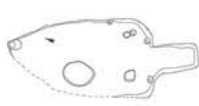






56 충청문화재연구원, 『홍성 송월리·학계리 유적』(2007).

57 한강문화재연구원, 『인천 운북동 유적』(2012b), p. 57·65·426~429.

58 중앙문화재연구원, 『인천 운서동 유적 I』(2010), p. 24.

59 한강문화재연구원, 『인천 중산동 유적』(2012a), p. 28·690.

60 김호진 외, 「안산 대부도 신석기시대 취락유적 - 2012년 중부지방 발굴조사 성과」, 『중부고고학회 2012년도 유적조사 발표회 자료집』(2012), pp. 17-36.

금강 (내륙지역)	 아산 성내리		 아산 장재리		 계룡 용동리		 옥천 대천리		 대전 관평동		(이상 중기)
	 전주 효자동		 청주 가락리		(이상 중기)		 익산 옹포리		 청주 영하리		 청주 쌍청리
금강 (해안·도서지역)	 보령 관창리		 홍성 상정리		 예산 목리		(이상 중기)				
서해중부	 인천 운북동		 인천 운서동		 인천 중산동		 안산 대부북동		(이상 중기)		
한강	 안성 양변리		 안성 월정리		 용인 농서동		(이상 중기)				
임진강	 파주 대능리		(불명)		동해중부		 양양 가평리		(중기)		
대동강	 봉산 마산리 (전기)		 청단 소정리				(이상 중기)		 평양 어은동(장춘)		 평양 호남리(남경)

도 2. '대천리식' 및 '유사대천리식' 주거지 평면도

역의 양양 가평리(B.C.3,100년)<sup>61)</sup> 등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대동강수계<sup>62)</sup>의 평양 어은동(장춘)<sup>63)</sup>·호남리(남경)<sup>64)</sup>, 봉산 마산리<sup>65)</sup>, 청단 소정리<sup>66)</sup> 등에서도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방형 또는 장방형에 돌출된 출입시설 등이 유사한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 유형의 주거지는 한반도 중부지방에 넓게 분포하였던 것으로 중부지역의 교류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파악된다.

## 2) 해안·도서지역

표 14. 시기별 변화양상

특징 \ 시기		I 기	II 기	III 기
입지		구릉	구릉	구릉
취락 규모		1~4기	1~6기	1기
주거지	평면형태	(반)원형 위주 > 방형	방형 위주 > 장방형 > 원형	반원형
	면적	소형(원형)방형) 위주 > 중형(원형) > 대형(원형)	소형(방형)원형)장방형) 위주 > 중형(방형)장방형)원형 > 특대형(방형)장방형) > 대형(방형)장방형)	소형(원형)
	바닥처리	생토면 위주 > 점토다짐	생토면	생토면
	노지	평면형태	원형(방형)장방형 · 원형) 위주 > 타원형((방형)장방형 · 원형) > 방형(방형)원형) > 장방형(방형)	장방형(원형)
		위치	중앙 위주 > 편재	중앙
		수량	1개 > 2개 · 4개	1개
		구조	위석식 > 수혈식 · 상면식	상면식
	주공	중주식(소형) > 4주식(소형)	4(6)주식 위주(소형)중형)대형 · 특대형) > 벽주식(중형)	
	출입시설	돌출(문서동식)	돌출(문서동식)돌출경사식)대천리식 > 유사대천리식)	
	기타 부속시설	수혈 · 토단	수혈 · 토단 · 벽구 · 칸막리시설용 주공	

61 국립문화재연구소, 『양양 가평리』(1999), p. 32 · 171.

62 대동강수계의 주거지는 평면형태는 유사하나, 유적마다 노지의 형태나 구조 등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거지 명칭이나 상대편년 등은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63 석광준 외, 『장춘유적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87-4(북한: 사회과학출판사, 1987).

64 김용간 외,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65 김동일 외, 『마산리 · 반궁리 · 표대 유적발굴보고』(북한: 사회과학출판사, 2002).

66 변사성, 『소정리유적 제1지점의 신석기시대 집자리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92-3(북한: 사회과학출판사, 1992).  
고영남, 『소정리유적 제3지점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8-3(북한: 사회과학출판사, 1998).  
전일권, 『소정리유적 제2지점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9-3(북한: 사회과학출판사, 1999).

유적	군산 오식도동(가도) 1~4호 서천 장암리 1·2호 예산 목리(3-4지점) G-1호 태안 달산리 1-1호	당진 가곡2리 I-3-1~3호 당진 기지시리 I-10201호 당진 소소리 II 1A-1,호 당진 우두리 II-73·75호 당진 유곡리(대창말) 2-3-1·2호 당진 유곡리(아랫말) 2-4-1·2호 당진 읍사리 1호 보령 관창리(D구역) KC-2·15·47·52호 서산 기지리 (101-3번지) I-1~3·II-1호 서산 예천동(지장골) II-1·2호 서산 왕정리 I 1호 아산 백암리(점배골) KC-001~003호 아산 성내리 1~4호 아산 용돌:(부리기) 나-1호 아산 장재리(안강골) 1~5·6-1~4호 아산 풍기동 1·2호 예산 목리(2-4지점) A-II-21·41호, B-I-5호 예산 효림리 I-1-1호 천안 청당동 1호 홍성 동성리 1~3호 홍성 상정리 1호 홍성 송월리 1호	군산 오식도동 (노래섬) 1호
----	---	--	---------------------

해안·도서의 경우, I기는 대부분이 패총 내의 반원형과 원형의 야영지로 보고된 유구이고, II기는 군산 오식도동(노래섬)의 1기뿐이다. 즉 주거지는 II기에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을 보여, 정확한 변화양상은 파악하기 어렵다. 입지는 구릉으로, 취락 규모는 1~2기→1~6기→1기의 변화양상을 볼 수 있다. 평면형태는 방형·장방형·원형 등이 확인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방형이 우세하지만, 원형에서 방형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면적은 소형·중형·대형·특대형 등이 확인되었는데, 특대형은 II기에 한정적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시기와는 무관하게 소형이 우세한데, 소형과 중형은 평면형태와는 무관하게 고르게 이용되었다. 중형은 II기에는 원형, III기에는 방형과 장방형, 대형과 특대형은 방형과 장방형 등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었다. 노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을 제외하고 원형·방형·장방형 등이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의 형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원형은 시기와는 무관하게 우세하고, 다양한 형태에 고르게 이용되었다. 위치는 일반적으로 시기와는 무관하게 중앙과 편재가 혼용되었는데, 편재가 우세하다. 수량은 1개와 2개가 혼용되다가 1개로 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구조는 수혈식·위석식·상면식 등이 혼용되었는데, 시기와는 무관하게 수혈식이 우세하고, 위석식→수혈식→상면식으로 변화는 양상이다. 주공은 4(6)주식·벽주식·종주식 등이 혼용되었



도 3. '신길동식' 주거지 평면도

는데, 전체적으로는 4주식이 우세하지만, 종주식→4(6)주식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4주식은 면적과는 무관하게 고르게 이용되었으나, 벽주식은 소형과 중형, 종주식은 소형에서 확인된다. 출입시설은 평면형태와 관련이 있으며, 돌출식의 대천리식·유사대천리식·운서동식 등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운서동식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천리식과 유사대천리식을 합하면, 대천리식이 우세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평면형태 방형 중에서 3~5m 정도의 중소형, 4주식의 기둥 배치, 중앙에 원형계 수혈식 노지 등의 특징을 갖춘 주거지(도 3)는 인천 늘들, 안산 신길동과 시흥 능곡동 유적 등 서해 중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와 유사하다. 이러한 특징을 갖춘 주거지에 대해 구자진<sup>67)</sup>은 '서해안식'·'늘들식'·'신길동식' 등으로 명명하였다.

67 구자진, 「중부 서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의 연구」, 『승실사학』 19(2006); 同著, 「중부 서해안지역 신석기시대 마을의 생계·주거방식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60(2008), p. 28.

## 2. 시기별 변화양상

### 1) I 기(~B.C. 3500년)

표 15. 지역별 I 기 주거지

특징		수계	내륙지역	해안 · 도서지역
입지				구릉
취락 규모				1~4기
주거지	평면형태			원형 위주 > 방형
	면적			소형(원형)방형 위주 > 중형(원형) · 대형(원형)
	바닥처리			생토면 위주 > 점토다짐
	노지	평면형태		원형(원형)방형 · 타원형(원형)
		위치		중앙 · 편재
		수량		1개 > 2개 · 4개
		구조		위석식 > 수혈식 · 상면식
	주공			중주식(소형) > 4주식(소형)
	출입시설			돌출(운서동식)
	기타 부속시설			수혈
출토유물(토기)			• 3부위 구분문계 중심: 단사선문, 조문, 종주어골문, 금탄리 I 식 • 영선동식, 대상반북문(충남 해안)	

내륙에서는 아직까지 I 기의 유적으로 확인된 예가 없다. 해안 · 도서에서는 구릉에 1~4기 정도의 주거지가 입지하였다. 평면형태는 원형 · 반원형 · 방형 등이 확인되는데, 대부분 패총 내의 반원형과 원형의 야영지로 보고된 유구로, 일상적인 주거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길동식 주거지와 유사한 예산 목리(3~4지점) 방형주거지는 AMS 분석결과로 산출된 절대연대가 B.C. 3720~3360년(B.C. 3540년)이고, 운서동식과 유사한 태안 달산리 상원하방형 주거지는 절대연대가 B.C. 5990~5840년(B.C. 5920년)으로 산출되었다. 본고에서는 모두 I 기에 편년하였으나, 출토유물로 보면 II 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금강수계에서는 정확하게 I 기에 해당될 만한 주거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AMS 분석결과에 따른 내용으로 본다면, 소형의 (반)원형에 중앙 또는 편재의 위석식 노지가 일반적인 양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원형 주거지는 중앙의 중심 주공을 중심으로 하고, 벽면을 따라 반원배치된 특이한 구조이다.

I 기(도 4)는 해안 · 도서에서는 서해중부지역과 유사한 문화권을 형성하며 출발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내륙지역은 아직까지 확인된 예가 없다.

시기	지역 입지	내륙지역	해안·도서지역
I기	하안 구릉		 예산 묵리(3-4지점) G-1호
	해안 구릉		 군산 오식도동(가도) 1호   군산 오식도동(가도) 2호   군산 오식도동(가도) 3호   군산 오식도동(가도) 4호 서천 장암리 1호   서천 장암리 2호   태안 달산리 1호

도 4. I기 주거지 평면도(縮尺 不同)

## 2) II기(B.C. 3500~3000년)

내륙은 구릉에 단독 또는 2~4기 정도의 소규모 군집을 이루며 입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부 충적대지에도 입지하였다. 주거는 소형의 원형 또는 대형의 장방형 주거지가 일반적인 양상이다. 이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대형의 장방형 주거지는 소위 ‘대천리식’으로 불리는 주거지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강·임진강수계, 경기만 일대, 대동강수계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확인되고 있어, 이 지역들과의 교류 및 선후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내부는 편채한 원형 수혈식 노지와 4주식이 일반적이다. 해안·도서는 구릉에 단독 또는 2~6기 정도의 소규모 군집을 이루며 입지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는 소형의 방형이 일반적이며, 내부는 중앙에 원형의 수혈식 노지와 4주식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이 지역에서는 대천리식 외에 2단 굴광의 소위 ‘운서동식 주거지’가 다수 확인되었다.

‘운서동식’이 확인된 예(도 5)로는 금강수계 내륙지역의 공주 신관동(B.C. 3220년)<sup>68)</sup>, 경기만 일

68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공주 신관동1 판골 유적』(2009), pp. 193-198.

표 16. 지역별 II기 주거지

특징		수계	내륙지역	해안·도서지역
입지			구릉 위주 > 충적대지	구릉
취락 규모			1~4기	1~6기
주거지	평면형태		장방형 > 원형 > 방형	방형 위주 > 장방형 > 원형
	면적		소형(원형)방형(장방형) > 대형(장방형)방형 > 중형(원형) · 특대형(방형 · 장방형)	소형(방형)원형(장방형) 위주 > 중형(방형)장방형(원형) > 특대형(방형)장방형 > 대형(방형)장방형
	바닥처리		생토면 위주 > 점토다짐	생토면
	노지	평면형태	원형(장방형 · 원형)방형 > 방형(장방형) > 장방형(방형)	원형(방형)장방형 · 원형 위주 > 타원형(방형)장방형 · 원형 > 방형(방형)원형 > 장방형(방형)
		위치	편재 > 중앙	중앙 위주 > 편재 > 중앙+편재
		수량	1개 위주 > 2개	1개 위주 > 2개
		구조	수혈식 위주 > 상면식 > 위석식	수혈식 위주 > 상면식 > 위석식 > 수혈식+상면식
	주공		4(6)주식(소)대형(특대형) > 벽주식(중형)	4(6)주식 위주(소형)중형(대형 · 특대형) > 벽주식(중형)
	출입시설		돌출(대천리식)유사대천리식(운서동식)	돌출(운서동식)돌출경사식(대천리식)유사대천리식
기타 부속 시설			수혈 · 토단 · 벽구 · 칸막이시설용 주공	수혈 · 토단 · 벽구 · 칸막이시설용 주공
출토유물(토기)			• 2부위 구분문계 쇄퇴: 단사선문, 찰과상 다지횡주어골문 • 동일문계 등장: 단사선문, 서해안식 횡주어골문, 구연한정 단사선문, 집선문, 능격문	

대의 김포 운양동(B.C. 3140년)<sup>69</sup> · 인천 운서동(B.C. 3840년)<sup>70</sup> · 삼목도 Ⅲ(B.C. 3340년)<sup>71</sup> · 논들(B.C. 3190년) · 중산동4(B.C. 3000년)<sup>72</sup> · 을왕동 Ⅲ(B.C. 2750년)<sup>73</sup> · 안산 대부북동<sup>74</sup> · 화성 석교리(B.C. 3020년)<sup>75</sup>, 임진강수계의 파주 대능리<sup>76</sup> 등에서 확인되었다. 운서동식은 금강수계 내륙지역의 공주 신관동을 제외하면, 한반도 서해중부 해안·도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69 한강문화재연구원, 『김포 운양동 유적 Ⅱ』(2013).

70 중앙문화재연구원, 앞의 책(2010), p. 240 · 251 · 537.

71 서울대학교박물관, 『인천 삼목도 Ⅲ유적 학술조사 보고서』(2007), p. 143 · 158.

72 한강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2012a), p. 247 · 706.

73 중앙문화재연구원, 『인천 을왕동 유적 - 영종도 북측유수지~을왕리해수욕장 도로공사구간내』(2006), p. 96 ·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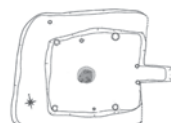


74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안산 대부도 신석기시대 취락유적 - 2012년 중부지방 발굴조사 성과』, 『2012년 중부고고학회 유적조사 발표회 자료집』(2012), pp. 17-36.

75 중부고고학연구소, 『화성 청원리 · 석교리 유적 -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16·22지역 내』(2013), p. 48 · 214.

76 강세호 외, 앞의 논문(2014), pp. 288-295.

























강세호, 앞의 논문(2015), pp. 4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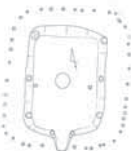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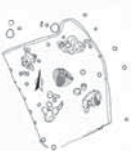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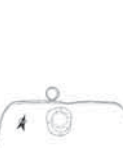






금강 (내륙지역)			공주 신관동	(중기)		
금강 (해안·도서지역)	    					
	태안 달산리(전기)	당진 유곡리	당진 울사리	아산 장재리	예산 효림리	(이상 중기)
서해중부	 		인천 운서동	인천 운서동	(이상 전기)	(이하 중기)
	     					
	인천 삼목도Ⅲ	인천 늘	인천 중산동	화성 석교리	안산 대부북동	인천 을왕동
한강			김포 윤양동		임진강 (불명)	
		용인 아곡리	(이상 중기)			

도 5. '운서동식' 주거지 평면도(縮尺 不同)

Ⅱ기(도6)는 두 지역 모두 원형 1개의 수혈식 노지와 4주식의 주공이 우세하다. 또한 I기에 해안·도서에서 확인된 상면식 노지가 이 시기에는 내륙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르면 두 지역 간의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기	지역 입지	지역	
		내륙지역	해안·도서지역
II기	충적 대지	 진안 갈용리(갈머리) 2호  진안 갈용리(갈머리) 2호  진안 모정리(진그늘) 'ㄷ'형 유구  진안 모정리(진그늘) 1호  진안 모정리(진그늘) 2호  진안 모정리(진그늘) 3호	
	하안 구릉	 세종 소담동 KC-001호  공주 신관동 1호  대전 관평동 II-1호  익산 신용리(갯집) 1호  익산 신용리(갯집) 2호  옥천 대천리 1호	 아산 성내리 2호  아산 성내리 4호  아산 성내리 3호  아산 성내리 1호  아산 백암리 KC-003호  아산 백암리 KC-002호  아산 백암리 KC-001호  아산 장재리(안강굴) 2호  아산 장재리(안강굴) 4호  아산 장재리(안강굴) 1호  아산 장재리(안강굴) 3호  아산 장재리(안강굴) 5호

도 6-1. II기 주거지 평면도(縮尺 不同)

시기 입지	지역	내륙지역	해안 · 도서지역
II기	하안 구릉	 <p>청주 가락리-1호</p>  <p>대전 관평동 1-1호</p>  <p>계룡 용동리 1호</p>  <p>계룡 용동리 2호</p>  <p>계룡 입암리 1호</p>  <p>전주 효자동 E-1호</p>	 <p>아산 정재리(안강굴) 6-1호</p>  <p>아산 정재리(안강굴) 6-2호</p>  <p>아산 정재리(안강굴) 6-3호</p>  <p>아산 정재리(안강굴) 6-4호</p>  <p>홍성 송월리 1호</p>  <p>예산 효림리 1-1-1호</p>  <p>아산 용두리(부리개) 나-1호</p>  <p>아산 풍기동 1호</p>  <p>아산 풍기동 2호</p>  <p>예산 목리2-4지점 A-II-21호</p>  <p>예산 목리2-4지점 A-II-41호</p>  <p>예산 목리2-4지점 B-I-5호</p>  <p>천안 청당동 1호</p>
	해안 구릉		 <p>당진 유곡리(대창말) 2-3-1호</p>  <p>아산 백암리 KC-002호</p>  <p>아산 백암리 KC-001호</p>  <p>당진 유곡리(대창말) 2-3-2호</p>  <p>당진 울사리 1호</p>  <p>당진 소소리 II-A-1호</p>  <p>보령 관창리(D구역) KC-47호</p>  <p>홍성 동성리 II-1호</p>

도 6-2. II기 주거지 평면도(縮尺 不同)

시기	지역 입지	내륙지역	해안·도서지역
Ⅱ기	해안 구릉		<div data-bbox="712 427 1289 576"> </div> <div data-bbox="721 587 1273 614"> 홍성 동성리 Ⅱ-2호    홍성 동성리 Ⅱ-3호    서산 왕정리 1-1호    홍성 상정리 1호 </div> <div data-bbox="712 651 1289 800"> </div> <div data-bbox="721 810 1289 838"> 당진 우두리 Ⅱ-73호    당진 우두리 Ⅱ-75호    서산 기지리(101-3번지) 1-1호    서산 기지리(101-3번지) 1-2호 </div> <div data-bbox="712 863 1289 1012"> </div> <div data-bbox="712 1023 1289 1051"> 서산 기지리(101-3번지) 1-3호    서산 기지리(101-3번지) Ⅱ-1호    당진 가곡2리 1-3-1호    당진 가락2리 1-3-2호 </div> <div data-bbox="712 1087 1289 1236"> </div> <div data-bbox="712 1247 1289 1274"> 당진 가곡2리 1-3-3호    서산 예천동(지장굴)Ⅲ-1호    서산 예천동(지장굴)Ⅱ-2호    서산 기지리(1구역) 1-1호 </div> <div data-bbox="712 1300 997 1449"> </div> <div data-bbox="712 1459 997 1487"> 서산 기지리(1구역) 1-2호    당진 기지리(4개) 1-1-2-1호 </div>

도 6-3. Ⅱ기 주거지 평면도(縮尺 不同)

### 3) III기(B.C. 3000~1600년)

표 17. 지역별 III기 주거지

특징		지역	내륙지역	해안·도서지역
입지			구릉 위주 > 충적대지	구릉
취락 규모			1~2기	1기
주거지	평면형태		원형 > 방형·장방형	반원형
	면적		소형(원형)·중형(방형·장방형) > 대형(방형·장방형)	소형(반원형)
	바닥처리		생토면	생토면
	노지	평면형태	원형(방형·장방형·원형) > 방형(방형)	장방형(원형)
		위치	편재 > 중앙	중앙
		수량	1개 > 2개 > 4개	1개
		구조	수혈식 위주 > 위석식·상면식	상면식
	주공		4(6)주식(중형)·벽주식(중형)	
	출입시설		돌출(대천리식)·유사대천리식·돌출경사식	
	기타 부속시설		수혈	
출토유물(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문계 일부 잔존: 예각 단·다치 횡주어골문, 다단 단사선문</li> <li>동일문계 위주: 단치·예각 서해안식 횡주어골문, 문양의 난삼화, 무문양</li> <li>이중구연·구순각목 공열문 등장</li> </ul>	

내륙은 구릉에 단독 또는 2기가 입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충적대지에도 입지하였다. 주거는 소형의 원형과 중형의 방형계 주거지에, 내부는 편재한 원형의 수혈식 노지와 4주식이 일반적이다. 출입시설은 대천리식·유사대천리식·운서동식 등 II기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소형의 방형 주거지에서는 해안·도서에서 II기에 나타나는 돌출경사식이 새로이 확인되었다. 해안·도서는 이 시기에 해당되는 유적이 군산 오식도동(노래섬) 1개소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화양상을 논하기는 시기상조이다. 앞으로 자료의 증가를 기대해본다.

이 시기(도 7)는 내륙은 II기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해안·도서지역은 자료의 부족으로 현재로서는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시기 입지	지역 내륙지역	해안·도서지역
충적 대지	 세종 대평동 C-가-1호	
Ⅲ기 하안 구릉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익산 옹포리 1-1호    청주 봉명동 IV-C-1호            청주 봉명동 IV-C-2호    청주 영하리 1호            영동 한곡리 A-1호    청양 학암리 1호            청주 쌍청리 2·3호         </div>	
해안 구릉		 군산 오식도동(노래섬) 1호

도 7. Ⅲ기 주거지 평면도(縮尺 不同)

## V. 맺음말

이상으로 금강수계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AMS 분석결과와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금강수계 신석기시대를 I · II · III기로 구분하였다. 또한 입지 · 평면형태 · 면적 · 내부시설로 구분하고, 내부시설은 다시 노지 · 주공 · 출입시설 · 기타 등으로 구분한 주거지의 구조 속성을 분류 · 분석하여, 지역 · 시기별 주거지의 유사성과 상이성 및 상호 교류관계를 도출해봄으로써, 금강수계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내륙지역의 경우, I기는 예가 없어 변화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충적대지와 구릉에 입지하였는데, 구릉이 우세하다. 취락은 1~4기의 규모에서 1~2기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유사)대천리식 주거지’는 구릉 정상부 평탄면에서 단독으로 형성되어 있어 특징적이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 원형 · 방형 등이 확인되었는데, 장방형이 우세하다. 주거면적은 소형 · 중형 · 대형 · 특대형이 확인되는데, 소형이 우세하다. 소형은 면적과는 고르게 나타나고, 중형은 II기에는 원형, III기에는 방형과 장방형, 대형과 특대형은 방형과 장방형에서 확인되었다. 노지의 평면형태는 원형 · 타원형 · 방형 · 장방형 등이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의 형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원형이 우세한데, 주거지의 평면형태와도 무관하게 고르게 이용되었다. 장방형은 II기에 한정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치는 일반적으로 편재와 중앙이 혼용되었는데, 편재가 우세하다. 수량은 1개 · 2개가 혼용되다가 1개로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조는 수혈식 · 위석식 · 상면식 등이 혼용되었는데, 수혈식이 우세하다. 주공은 4(6)주식과 벽주식이 혼용되었는데, 4주식이 우세하다. 4주식은 면적과는 무관하게 고르게 이용되었으나, 벽주식은 소형과 중형에서만 확인된다. 출입시설은 평면형태와 관련된 시설로, 돌출식의 대천리식 · 유사대천리식 · 운서동식 등이 확인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대천리식이 우세한 양상을 보인다.

해안 · 도서지역의 경우, I기는 대부분이 패총 내의 반원형과 원형의 야영지로 보고된 유구이며, III기는 군산 오식도동(노래섬)의 1기뿐으로, II기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 정확한 변화양상은 파악하기 어렵다. 입지는 모두 구릉으로, 취락 규모는 1~2기→1~6기→1기의 양상을 보인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 장방형 · 원형 등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방형이 우세하지만, 원형에서 방형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거면적은 소형 · 중형 · 대형 · 특대형이 확인되었는데, 특대형은 II기에 한정적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소형이 우세한데, 소형과 중형은 평면형태와는 무관하게 고르게 이용되었다. 중형은 II기에는 원형, III기에는 방형과 장방형, 대형과 특대형은 방형과 장방형에서 확인되었다. 노지의 평면형태는 원형 · 방형 · 장방형 등이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의 형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원형은 시기와

는 무관하게 우세하면서, 주거지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이용되었다. 위치는 일반적으로 편재와 중앙이 혼용되었는데, 편재가 우세하다. 수량은 1개·2개가 혼용되다가 1개로 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조는 수혈식·위석식·상면식 등이 혼용되었는데, 수혈식이 우세하고, 위석식→수혈식→상면식의 변화양상을 볼 수 있다. 주공은 4(6)주식·벽주식·종주식 등이 혼용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4주식이 우세하고, 종주식→4(6)주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4주식은 면적과는 무관하게 고르게 이용되었으나, 벽주식은 소형과 중형, 종주식은 소형에서 확인되었다. 출입시설은 평면형태와도 관련이 있는데, 돌출식의 대천리식·유사대천리식·운서동식 등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운서동식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천리식과 유사대천리식을 합하면, 대천리식이 우세한 양상이다. 특히 주거지의 평면형태 중에서 3~5m 정도의 규모·4주식의 기둥 배치·중앙에 원형계 수혈식노지 등의 특징을 갖춘 방형주거지는 안산 신길동과 시흥 능곡동 유적 등 서해중부지역에서 확인되는 소위 '신길동식' 주거지와 유사하여, 두 지역 간의 교류 및 선후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I기(~B.C. 3500년)는 내륙에서는 아직까지 이 시기의 주거지 유적으로 확인된 예가 없다. 해안·도서에서는 구릉에 1~4기 정도의 주거지가 입지하였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반)원형·반원형·방형이 확인되었지만, 반원형은 대부분 패총 내의 야영지로 보고된 유구로, 일상적인 주거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소형의 (반)원형에서는 중앙 또는 편재의 위석식 노지가 확인되었고, 반원형 주거지는 중앙의 중심 주공을 중심으로 반원의 벽면을 따라 주공이 배치된 특이한 구조이다. 이 시기는 내륙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주거지 유적이 조사된 예가 없다. 해안·도서지역에서는 서해 중부지역과 유사한 문화권을 형성하며 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II기(B.C. 3500~3000년)는 내륙은 구릉에 단독 또는 2~4기 정도의 소규모 군집을 이루며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충적대지에도 입지하였다. 주거는 소형의 원형 또는 대형의 장방형 주거지가 일반적인 양상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대형의 장방형 주거지는 소위 '대천리식'으로 명명된 주거지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강·임진강수계, 경기만 일대, 대동강수계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확인되고 있어, 이 지역들과의 교류 및 선후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내부는 편재한 원형 수혈식 노지와 4주식이 일반적이다. 해안·도서는 구릉에 단독 또는 2~6기 정도의 소규모 군집을 이루며 형성되었고, 주거는 소형의 방형, 내부는 중앙에 원형의 수혈식 노지와 4주식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또한 대천리식 외에 2단 굴광의 소위 '운서동식 주거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주거지는 내륙지역의 공주신관동을 제외하면, 한반도 서해 중부 해안·도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내륙이나 해안·도서 모두 원형 1개의 수혈식 노지와 4주식의 주공이 일반적인 양상으로 확인되었고, I기의 해안·도서에서 확인된 상면식 노지가 II기에는 내륙에서도 확인되



어, Ⅱ기가 되면 두 지역 간의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Ⅲ기(B.C. 3000~1600년)는 내륙은 구릉에 단독 또는 2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충적 대지에도 입지하였다. 주거는 소형의 원형이나 중형의 방형계 내부에 편재한 원형의 수혈식 노지와 4주식이 일반적이데, 출입시설은 대천리식·유사대천리식·운서동식 등 전 시기와 유사한 양상으로 확인된다. 다만, 소형의 방형주거지에서는 Ⅱ기에 해안·도서에서 확인된 돌 출경사식이 확인되었다. 해안·도서는 이 시기에 해당되는 유적이 군산 오식도동(노래섬) 1개소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화양상을 논하기는 시기상조로, 앞으로의 자료 증가를 기대해본다. Ⅲ기는 내륙은 Ⅱ기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해안·도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금강을 중심으로 하는 금강수계, 즉 한반도 중앙부에 자리 잡은 금강과 만경강 수계의 중남부 내륙지역과 태안반도와 군산만 일대의 서해 중남부 해안·도서지역은 각 지역의 문화가 교류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문화의 흐름이나 변화양상, 지역 간의 교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가교 지역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륙지역은 Ⅰ기에 해당되는 예가 없고, 해안·도서지역은 Ⅲ기에 해당되는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서, 현실적으로 확실한 특징이나 변화양상 등을 단정 짓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두 지역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더 많은 자료의 증가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A Study of Neolithic Period Pit Dwellings in the Geumgang River Water System Region

Jung Sunghee \_ Curator, Archaeology and History Division,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recent execution of a number of major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including the Four Major Rivers, Saemangeum, 2030 Happy City and New City projects, has triggered archaeological excavations resulting in the production of an increasing number of research documents on Neolithic Period Pit Dwellings. However, research on Neolithic dwelling sites in the Geumgang River water system regions is not as intense as it is on such dwellings in other regions. As such, this paper studies-for each water system-the characteristics, changes, and human interactions in the Neolithic dwelling sites excavated so far in the Geumgang River water system regions.

The source of the Geumgang River water system discussed in this paper is located 897m above sea level at Mount Sinmusan in Jangsu-eup, which is located in Jangsu-gun in Jeollabuk-do Province. The Geumgang River passes through Chungcheongnam-do and Chungcheongbuk-do Provinces before flowing into Maseo-myeon in Seochon and exiting to the Yellow Sea via Gunsanman Bay. The scope of this research includes, however, the Mangyeonggang River, which meets the Geumgang River at the entrance to the Yellow Sea, Gunsanman Bay, and Taean Bando (central and southern coast facing the Yellow Sea, a region scattered with islands). If viewed in term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research area includes Daejeon and Sejong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Goesan, Jincheon, Cheongju, Boeun, and Okcheon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Muju, Jangsu, Jinan, Wanju, Iksan, and Jeonju in Jeollabuk-do Province, and the islands in Gunsanman Bay. In this paper, the Geumgang River water system is separated into an inland region and a coastal/island region, with the inland region comprising the Geumgang and Mangyeonggang Rivers, and the coastal/island region comprising Taean Bando and Gunsanman Bay.

Since rivers and seas were important means of transportation during the Neolithic period, it is presumed that people travelled along the Hangang River and the Geumgang

River and actively interacted in central Korea. Especially, in the archaeological remains found in each region, the attributes, structures and distribution of the dwelling sites that formed the basis of people's life in ancient times differed from one region to another. At the same time, there are some elements that point to the existence of interactions between different people. This paper analyzes the Neolithic settlements found in water systems to determine the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relationships among structural properties, such as their location, size, layout of the dwelling, area, ground treatment, hearth, pillar holes, and entrances. Then the changes over distinct periods or from one water system to another are identified in order to determine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life and culture and interactions among the people who lived along the Geumgang River water system in the Neolithic Period.

For Period I (~B.C. 3500), no remains of dwellings have been found inland as of yet. In the coastal/island regions, 1~4 dwelling sites have been discovered on hilly terrain. The ground layout of the dwellings could be identified as circular, semicircular, or square. However, semi-circular dwellings were mostly the remains of campsites in a midden, so they cannot be considered to have been places of residence. Additionally, in the small semi-circular layouts, slab stone-type hearths were discovered at the center of the semicircle.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coastal/island regions started out in the same cultural belt as the west central coast region.

In Period II (B.C. 3500~3000), independent or small communities of 2-4 dwellings existed inland on hilly terrain, and some were located on alluvial plains as well. The general form of the dwellings was either a circle or a large square. The large square-sized dwelling that stands out in this particular area is called the 'Daecheon-ri type,' and similar dwellings have been found in the Hangang River and Imjingang River water systems, in Gyeonggiman Bay, and in the Daedonggang River water system. Thus, this type of dwelling constitutes a great material for studying the exchanges that took place between these regions and their hierarchical relationships. The interior of these dwellings generally consisted of a circular pit type hearth and four pillar holes. In coastal/island regions, independent or small communities of 2-6 dwellings were formed on hilly areas, and the dwellings generally took the form of the small square type, with a round pit-type hearth at the center and four pillar holes. Furthermore, a large number of 'Unseo-dong type' dwellings have been identified besides the 'Daecheon-ri type' and except for the Singwan-dong Site in Gongju, they were scattered mainly in the central west coast

and island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other hand, in the inland regions or coastal/island areas, dwellings with one circular pit-type hearth with four pillar holes were the main dwelling type found. The surface-type hearth of Period I identified in the coastal/island areas has also been found to have existed inland during Period II. This implies that by Period II, there were exchanges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regions.

In Period III (B.C. 3000~1600), an independent dwelling or units of two were formed inland on a hilly area, but some were also formed on alluvial plains. The layout of the dwellings generally consisted of a small-sized circle or a mid-sized square, with a circular pit-type hearth and four pillar holes. The entrances were similar in appearance to those found in the previous period. However, the entrances in the small square layout dwellings were the same extruded, sloping entrances as those found in the coastal/island areas of Period II. The inland areas during Period III show the same changes as in Period II, but due to a lack of data, the changes that took place in the coastal/island regions cannot be investigated.

The Geumgang River water system consists of important bridge zones through which regional interactions and the flow of cultures and changes during the Neolithic Period of Korea could be examined. Presently, however, there are no dwelling sites dating back to Period I in the inland regions, and only one site has been found from Period III in the coastal/island regions, and even this has been confirmed to be a temporary dwelling for limited activities rather than a regular pit-house.

Realistically speaking, it is too early to determine any distinct characteristics or identify any changes that took place. Therefore, we must hope for more data to come our way and shed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regions. This remains a research task for the future.